

필리핀 바이파스 어린이 집짓기 ▶12면



7 터프모아 태산, 사랑의 모금통



8 라인댄스 DVD 초급2 출판



9 태백지역 독거노인 식수 공급



10 녹음도서 보급합니다



25 결연아동 후원자를 찾습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 571-432-9868 / 703-968-3010

이메일 : caritasus@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caritaswonjuva.com>

글 실는 순서

2. 고국에서 온 편지..... 김지석 주교
카리타스란
3.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곽호인 신부
회원기도문
4.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 유홍열 회장
카리타스 정기 이사회..... 유자경
5. 편집인 데스크 -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희망..... 정영희 기자
6. 카리타스와 함께하며..... 유관일
7.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를 찾아서..... 차명자
8. 라인댄스 초급 2반 DVD 제작
라인댄스에서 배운 봉사하는 마음..... 김옥순
9. 태백지역 독거노인 식수 공급 후원..... 미주평화신문
10. 녹음도서를 소개합니다..... 유자경
12. 필리핀 뼈아파스..... 김가밀라 수녀
14. 머리 깎고 불우이웃도 돕고..... 정영희
15. 주는 기쁨의 편안함..... 캐서린 박
16. "산타가 되어 주세요"..... 남정률
17. "네팔에도 산타가 오셨어요"..... 김지나
"허~허~허~ 선물주러 왔단다"..... 천사들의 집
18. 인류 첫 비행의 현장에 가다..... 이소영
20. 하이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레이스 리
21.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지침..... 노명숙
22. 독거어르신 난방비·급식비 지원..... 장해영
23. 황성군 노인복지센터 난방비 지급 현황
설원 누비며 장애인에게 희망 전한다..... 도민일보
24. 북평에서 후원자님께 온 편지
25.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헤레아 수녀
불우아동 결연
26.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8. 우리의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후원금 내역 보고
바람의 기별..... 정채봉
29. 사랑의 함께 나누실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후원회 사무실
30. 광고 - 강원권 치과, Kim' S Auto
Fairfax Memorial Park, 워싱턴 그래픽
31. 광고 - Charlie H. Hong, 차명자 치과
윤경자 치과, 웨어팩스 가정의학
32. 광고 - 라인댄스 초급2 DVD 출시

고국에서 온 편지

감사의 마음, 긍정적인 삶

김지석(야고보)주교 <원주교구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중에 큰 선물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십니다. 첫 번

로 "빛이 생겨라"(창세 1,3)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주에서부터 식물에 이르기까지 한 마디 한 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하느님처럼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한 마디 말이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은 삶에서 우러나는 지혜의 말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쓸 수 있으면 삶의 기적을 이룬다고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우리의 말이 있듯이 우리가 긍정적인 말과 함께 희망의 표현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우리 주위로부터 들어왔듯이 말이 주는 위력은 큰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의 표현은 이웃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고 믿고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진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생명의 입김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는다면 그 말의 표현도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말로 표현할 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상대나 기쁨과 풍요로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앙인이자라면 우리의 삶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 마음이 표현해야 되겠지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산다면 적어도 슬픔과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마음에도 없는데 체면이나 자리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다면 슬픈 일일 것입니다.

작은 사랑실천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내 입장을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한다면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봉사의 기쁨을 순간순간 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표현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기쁨과 주님의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때로 내 이웃이 슬픔과 소외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따뜻한 말 한 마디가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과 기쁨의 씨앗을 뿌리며 이웃에게 봉사를 한다면 이 현실이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청하면서 하느님께 우리의 희망을 빌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기쁜 봉사의 삶을 주님께 봉헌 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카리타스(Caritas)란?

라틴어로 '카리타스(Caritas)'라고 쓰며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카리타스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하기도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나 단체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와 전세계 198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4개 카리타스는 상호협력함으로써, 특히 제 3세계 국가의 구호 및 복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며

김수환 추기경님이 지난 2월에 선종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기록적인 조문행렬, 20%에 달한 장례미사의 TV 시청률과 함께 국민 10명 중 9명이 존경을 표기한 추기경님의 이유언은 한국에 “사랑 바이러스” 신드롬을 일으켰으며 우리에게 감사와 믿음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어느 시인이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추기경님은 그리스도인이란 이 시인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우리 희망의 전부임을 굳게 믿는 사람”이며, 또한 “그 분이 희망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추기경님께서서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한국의 격동기에 민주화 운동의 버팀목으로서, 힘겹고 고독한 길을 걸어 가시면서도 신부들에게는 항상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느날 젊은 신부가 추기경님과 주교관에서 식사를 할 때, 추기경님께서 가난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젊은 신부가 물질적인 가난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자 추기경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건, 적게 가진 사람이건, 누구나 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민을 한다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애쓰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야. 때로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물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해주지는 않는다네.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네. 성직자들만이라도 ‘너희는 거저 받았느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물질을 떠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며 성직자들의 청빈한 삶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추기경님의 이런 가르침은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민자들은 자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재물이나 자녀교육을 통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해서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은 성모님께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신 것처럼, 모든것을 하느님을 믿고 온전히 의탁할 때,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맡겨 주신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 할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남긴 계명으로

곽호인 베드로 신부

〈카리타스 이사장
성 정바로 천주교회 주임신부〉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 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 처럼 요즘 흔하게 쓰여지는 단어도 없을 것 입니다. 유행가 가사나 영화, 드라마들은 대부분 “사랑”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안셀름 그륀 신부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할 때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고 하였고, 사랑이란 “세상 모

든 존재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 속에서 건강해 지며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인도 캘커테의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가난한 인간에게는 음식보다 사랑의 굶주림이 더 심각하다”고 하시며 뜨거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추기경님은 사랑은 입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하며,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낮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나 걸렸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타인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말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추기경님은 “사랑”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랑, 곧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랑이 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기침체와 불황이 계속되는 요즘이 웃을 먼저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 일 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모금액이 2007년의 모금액보다 많았다는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보고는 흐뭇한 일입니다. 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여러 후원자님들의 가슴에서 우러난 사랑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데레사 수녀님이 “기도는 신앙을 낳고, 신앙은 사랑을, 사랑은 봉사를 낳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추기경님은 “우리 각자 사랑의 등불을 켜서 어두어져 가는 세상을 밝히려는 것이 그분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등불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옆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추기경의 말씀을 새기고, 나와 가까운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면 우리 가슴에 작은 등불을 밝히는 것이며, 그 작은 등불은 점차 번져나가 점점 어두어져 가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회원 기도문

모든 이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봉헌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 대한 굳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사랑 닻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과 기도로
주님 모상이 우리와 이웃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두 손 모아 간절히 청하오니
교회로 하여금 세상 안에
주님 뜻을 식별하여
죄와 온갖 고통 속에
관여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사랑의
성사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모든 이를 돌보는
성직자, 수도자와 봉사하는
모든 이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당신 모습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원주 카리타스에 함께 하시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사랑의 작은 불꽃 모임이 되어
주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도구되게 도와주소서.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하나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

유홍열

(원주카리타스 후원회장)

요즘은 신문을 펼쳐도 TV를 켜도 보도는 항상 불행이니 실업이니 하는 경제문제가 뉴스의 대부분인 듯 싶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혹은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지 등을 분석도 많고 의견도 많아 보입니다.

사실 주위들은 말들 이외에 제가 더 아는 것도 없는 처지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거기에 무언 더 보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에서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때에 읽었던 복지재단의 모금에 관한 신문기사 때문입니다.

미국내 쇼퍼몰에 자리하고 있는 연쇄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소매점포들이 일년 매출의 거의 반 가량을 연말 경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규모의 복지재단들 또한 연말 후원금이 큰 부분을 차지 한다는 사실과 함께 2008년 후반기에 증시 폭락, 은행도산, 대규모 해고 사태와 함께 찾아온 경제 불황이 복지후원이나 문화지원 등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의 모금 활동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도한 내용이었습니.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파산한 대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던 곳은 타격이 너무 커서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실직의 증가로 대부분 개인 후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신문기사는 모두가 열려하고 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보여 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후원금의 액수나 후원 회원의 숫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의 뿔을 가지고 나눌 때보다 뿔이 반 밖에 없을 때 나누면 그 양이 적을 수 밖에 없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원주 카리타스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후원금의 액수가 커져야만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 그런 날이 쉽게 오지도 않았지만 만약이라도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 일까요. 사실 더 크게, 더 많이를 쫓다가 결국 여기에 이른 것이라면 이제 우리를 모두 크고 많아야만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각박해지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의 기쁨을 찾으며 살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카리타스 정기 이사회

유자경

(카리타스 운영이사)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은 2월 18일 성 바오로 한인성당 회의실에서 6차 법인운영 이사회를 가졌다. 이사장이신 박호인 신부님의 기도와 인사로 시작된 이사회는 유홍열 회장의 진행으로 2008년도 사업보고 및 활동평가, 재무보고, 2009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 결정하였다.

2008년도에는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비하여 회원 수는 5%정도, 회원후원금은 20%정도 증가했다. 또 2008년에 추가된 10여개 업소를 포함한 총 50여개 업소에 설치된 사랑의 모금함을 통한 후원금도 15% 증가했다. 후원금 총액을 보면 2007년의 16만여 달러에서 24만여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하여 박호인 이사장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원과 후원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능했다. 회원들과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모금한 후원금 전액은 원주 천사들의 집, 모나카의 집, 살레시오의 집,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등 장애인과 불우 청소년을 위한 고국의 52개 시설과 인도네시아, 네팔, 파푸아 뉴기니 등 해외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활동부문에서는 라인댄스 DVD가 성공적이어서 200개 이상 판매되었고 미용이벤트도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처음 실시한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도 성공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많은 어린이에게 기쁨을 주는 뜻 깊은 행사였다. 산타 후원금을 보낸 모든 복지시설로부터 이 행사가 봉사자들에게도 힘이 되었다는 사연과 함께 고맙다는 편지를 받았다.

2009년도 사업에 관하여 유홍열 회장은 '회원배가 운동, 사랑의 모금함 보급 확산, 홈페이지 활성화 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 했다. 카리타스는 이 밖에 올해 주요 사업으로 미용이벤트, 라인댄스 DVD 제작, "산타가 되어주세요" 등 기존 행사 외에 특별히 필리핀 바이파스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아시아 지역을 주로 후원했으나 앞으로는 거리상 가까운 미 대륙의 멕시코 등 지역과 관련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한편 복지체험 및 봉사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총 12명의 운영이사를 행사(이대리사), 후원회지(유자경, 차명자), 홈페이지(하보이, 유자경), 결연아동(한안필라), 홍보(김대리사), 녹음도서(유자경), 사랑의 모금함(유자경, 차명자), 청소년(고재오) 담당 등으로 세분화,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후원회원들을 꽃 이름 등을 부쳐 구분하는 방법도 논의하였다.

불황을 이겨낸 이웃사랑에 힘입어 더욱 큰 사랑 나누기에 정진할 것을 약속하며 이사회를 마쳤다.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희망

정영희 기자 <워싱턴 한국일보, 원주 카리타스 편집인>

편집인 데스크

최근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워싱턴 지역의 한 대학교수와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다.

항상 밝고 다정해서 ‘스윗 맨’이라고 불리는 그는 세상에 걱정거리라곤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분이다. 얘기 도중 그가 장애인 협회 부모 모임에서 자원봉사 하고 있다는 것과 자폐증(autism) 아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 한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친 그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음을 당당히 밝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유학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갈까를 생각하다가도 아직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택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자신의 장애를 가진 아들로 인해 ‘삶에 대한 겸손함과 생명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세상과 사람에 대해 애정어린 시각을 갖게 됐다’며 “만약 그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고 살아왔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온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했던 사고 또는 병으로 인해 누구나 장애의 가능성은 있다”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같이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어 함께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Don't Give Up)

지난해 워싱턴에서도 강연한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씨도 2000년 스물 셋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안면화상을 입었지만 당당하게

새 삶을 살고 있는 케이스. 2006년 한국 환경재단 선정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들기도 한 그는 푸르메 재단의 돈 기브 업(희망나눔)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그는 “지금도 절망하려고 마음을 내버려 둔다면 나는 매일 매일의 매 순간을 절망할 수도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해도 의문을 가질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는 지난날들을 통해 절망은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배웠다. 고통 속에서 절망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슬픔의 폭풍우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있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외로움의 눈보라 속에서는 눈을 뜨는 것조차 쉽지 않다.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 존경받는 이유의 공통점 중 하나가 그들이 그 쉽지 않은 일들을 힘쓰고 애쓰며 해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마음을 이기는 것, 포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로 큰 돈이 생기거나, 엄청난 과업을 이루어 세상의 존경을 받거나, 빛나는 노벨상을 받는 일이 아니어도 좋다. 우리는 그 절망을 이김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생명’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절망은 없다

워싱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복 박사, 정유선 교수도 장애를 이기고 우뚝 선 사람들.

이승복 박사는 체조 국가 선수로 연습 중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자, 장애에 굴하지 않고 의대에 진학, 현재 존스 홉킨스대 의학센터 재활의학 의사로 활동 중이다.

정유선씨는 세 살 때 황달로 인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 언어 및 신체장애를 갖게 되었으

나 학업에 정진, 현재 조지 메이슨대 특수교육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들은 삶 속에서 좌절과 실의에 부딪혔을 때 성공적으로 극복한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 후 눈뜨게 된 희망

한국의 스티브 호킹으로 불리는 서울대 이상목 교수. 그는 2006년 7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칼텍)의 초청으로 죽음의 계곡을 탐사하다 뜨거운 사막 한 가운데서 모래먼지에 차가 전복되면서 목 아랫부분이 모두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그의 인생은 병원침대 위에서 끝날거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6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했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강의와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목 윗부분만 쓸 수 있는 이교수는 머리를 움직여 전동휠체어를 이동시키고 노트북과 연결된 마우스를 불고 빠는 방법으로 세상을 클릭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이교수는 “일박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절망이 긍정으로 바뀔 때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불가능은 없다(Nothing is impossible)’라는 시각장애인 김기현씨의 절망을 딛고 일어선 스토리.

충천연색이었던 그의 삶을 암흑으로 송두리째 바꾸는 사고는 스무살 때 발생했다. 대학입학을 앞두고 평소 불편하던 턱 관절 수술 도중 3분여 동안 기도가 막히고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의식 불명, 전신 마비가 됐다. 19세 꿈 많던 예비 여대생은 대소변을 못 가리는 갓난아이와 같은 처지가 됐다.

사고 발생 후 6개월. 몸의 대부분 기능이 깨어났지만, 시력을 잃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다. 받아들이기 힘든 통보였다.

“살아서 무엇하나? 어차피 이곳이 지옥인데.” 15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 세상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 순간 아이러니컬하게 지옥에 가서 고통 받을 생각이 떠올라 포기했다.

사고 3년 뒤, 시각 장애인 등록을 하면서 “이거 나중이라도 시력이 돌아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라며 울먹거렸다. 1급 시각 장애인의 현실은 그렇게 출발했다.

2003년 한국맹인교회에 나간 첫날 그녀의 손을 잡고 안내해준 박관용씨와 결혼해 남편의 외조에 힘입어 보스턴대학 재활상담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4월에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한다. 그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신과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 또 슈퍼우먼으로 생각하지도 말아 달라”며 “슈퍼우먼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와 아내, 엄마로 치열하게 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절망을 뛰어 넘는 7가지 비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불경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행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해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절망 속에서 찾아진다는 것. 실제로 역경을 딛고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증언하고 있다.

심리학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회복탄력성(resilience)라고 부르고, 그 요인을 7가지로 나누어 회복탄력성지수(RQ, resilience quotient)를 만들어냈다.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이 그 7가지 요소다.

행복을 느끼는 능력의 50%는 유전적 요인이고 10%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학습에 의한 낙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학습에 의해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인 희망, 즉 ‘목표성 있는 낙관성’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필립 아담스(Phillip Adams)는 ‘기꺼이 시도했다 비참하게 실패하고 다시 시도해보지 않으면, 성공은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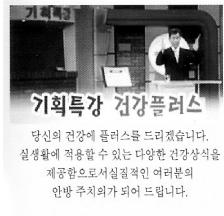
절망하지 말자.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한번뿐인 삶을 치열하게 살자.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애정어린 시선을 갖자.

어렵고 힘들 때 일수록 서로를 보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CBS PROGRAM



온혜로운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를 찬양하는 시간
축복과 은혜 감사망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기회특강 건강플러스
당신의 건강에 플러스를 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상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여러분의
안방 주치의가 되어 드립니다.

WBS 초대석

진행: 유관일 본부장

워싱턴지역 목사님, 지역사회 인사
방미 정치인 등 회계의 인물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대담 프로그램



크리스천 파워특강
최고의 명강사와 시청자가 함께 아우러지는
생동감 있는 현장. 제직과 감동을 느끼다 보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콘서트
국내외 성가 연주회와 CCM콘서트등
각종 공연의 감동을 여러분의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WBS-TV는 선교방송입니다**

떠돌아다니며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방송입니다.

WBS-TV는 교육방송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동포 2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나이가 주류 사회에서의 주역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자랑스런 한국인의 얼을 심어 주는 차세대 교육 방송입니다.

WBS는 문화 예술방송입니다

교회의 찬양 예배 문화를 갱신하고 건강한 기독교 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확산을 선도하는 문화 예술 방송입니다

카리타스와 함께하며

유관일

(WBS 워싱턴 TV 대표)



WBS 워싱턴
TV방송은 세
계의 수도 워
싱턴을 중심으
로 한 지역에
COX Cable

의 채널30 공영방송을 통하여 수, 목, 금
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일
요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방영하고 있
다.

진리의 말씀을 TV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한편 문화, 예술, 교육 방송을 통하여 후
손에게 물려 줄 자랑스런 한국인의 얼을
교포사회에 심어 주고 한민족의 우수성과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주류사회에 알리고
자 하는 사명을 갖고 방송에 임하고 있
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인 WBS-초대석은
화제나 미담의 주인공, 워싱턴 방문 인
사, 사회 인사, 종교인 등을 초대하여
모시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행의 주인
공 윤홍길씨, 김수환 추기경,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고은 시인, 배은하 신
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손흥규 연
세대 부총장, 이원상, 장경동 목사, 가
수 조영남, 윤형주, 바이올리니스트 강
동석, 데이비드 김 등150여명을 초대하
였다.

그동안 제작한 프로그램으로는 “생명의
말씀”, “건강을 말한다”, “정신대 다큐멘
터리”등이 있으며, 자체제작 프로그램 외
에 CBS 한국 기독교방송, 기독교 TV,
MBC Net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취합
방영하기도 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삶과 신앙고백인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의 30화 “추기경
에 임명되다” 방영을 위해 편집작업을 하
는 중 카리타스 복지재단으로 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카리타스와의 인연을 되돌아
보게 되었다.

홍콩섬 산 중턱 미드레벨의 케인로드에
있는 맹오이 쫄삼 - 총각시절 싸고 맛있

으며 양도 푸짐한 이곳의 Canteen에 자
주 다녔다.

홍콩에서 이 Canteen을 드나들며 만나
게 된 홍콩의 카리타스 센터는 이미 70년
대초에 큰 건물을 지어 숙소, 강당, 식당
등 종합사회관을 운영하며 올린 수입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는 문자 그
대로 밝은 사랑을 펼치고 있었다. 입지적
인 장소와 규모, 방법의차이는 있겠지만
배은하 신부님의 황성종합사회복지관이
나, 원주카리타스 사목과 맞물려 간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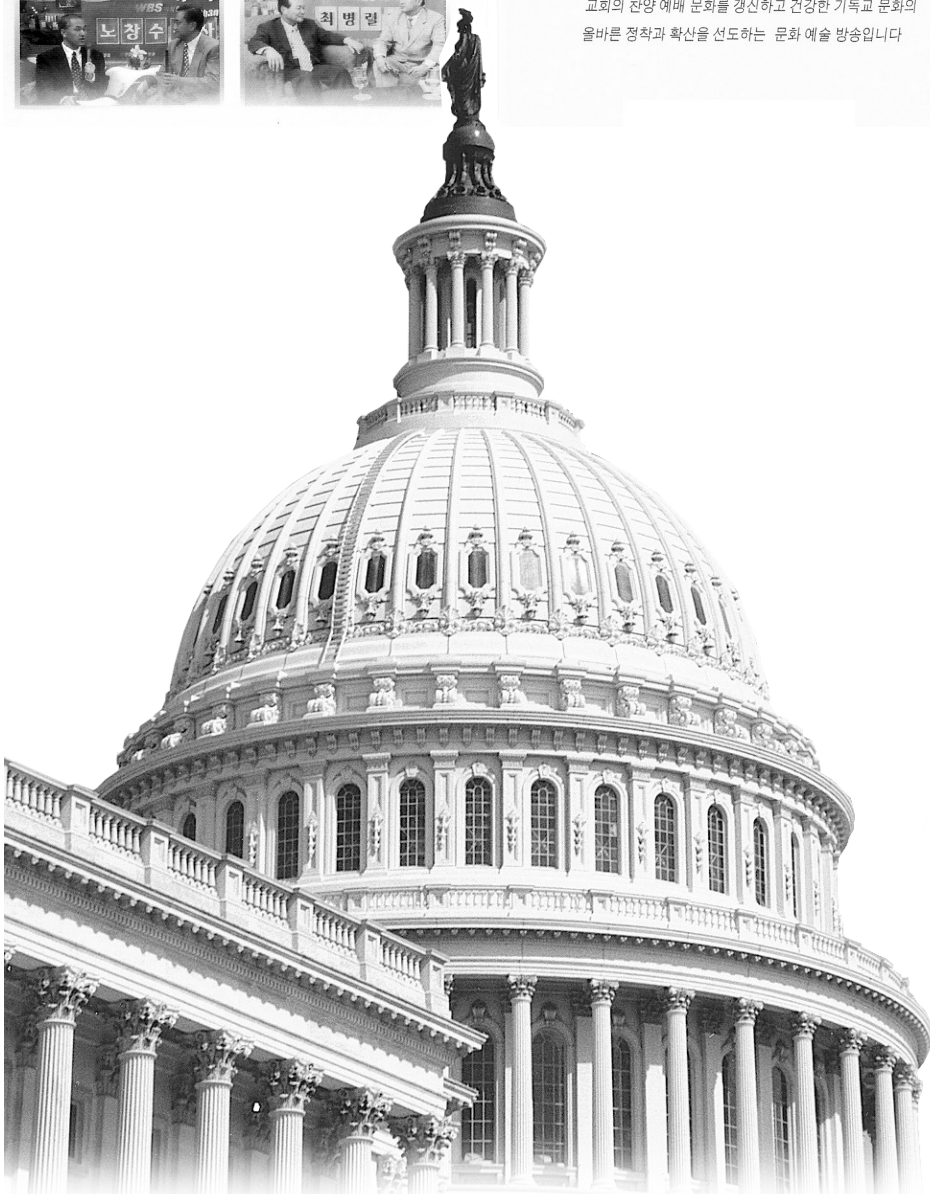
몇 해 전 김 추기경님께서 워싱턴 방문
시 단독대담으로 방송할 때 회고록은 언
제 출간하실 계획인지의 질문에 평화방송
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될 것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 정 바오로
성당의 협조로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를
WBS-TV방송에서 작년 12월부터 계속
방영하고 있다.

한국 가톨릭의 현대사이자 한국의 현
대사이기도 한 이 ‘추기경 김수환 이야
기’는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때로는 준
엄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해맑은 소년
같은 미소로 대하시는 추기경님의 진 면
목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대하 영상자서
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 꼭 시청을 권하
고 싶다.

언젠가 WBS초대석에 황성종합사회복
지관장 배은하 신부님을 초대하여 신부님
의 순수하고 진솔한 말씀과 사역내용을
소개, 은혜로운 교감을 공유할 수 있었
다.

그리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경쾌하며
충분한 운동이 되는 라인댄스, 이웃돕기
미용이벤트, 필리핀 빠야따스의 후원사업
등 원주 카리타스의 활동을 방송을 통하
여 알리고 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를 통
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 믿으며, 이러
한 일들을 통하여 카리타스와 함께 주님
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의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WBS-TV의 작은 협조가 카리타스가 지
향하고 있는 사랑 나누기와 아름다운 세
상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를 찾아서

티끌모아 태산, 모금통 식구들 화이팅!!

차명자 <카리타스 재정/운영이사>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다. 일 마치고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디저트 까지 챙겨 먹고 TV 앞에 앉아 아주 큰 잔돈 보따리를 탁자위에 신문지를 깔고 쏟아 놓는다. 이번엔 25 센트짜리 많은 잔돈이 산더미처럼 눈 앞에 쌓였다. 반갑게도 시누님이 호박죽을 만들어 가지고 놀러 오셔서 오늘은 두 사람이 수다를 떨며 약한시간만에 그 많은 잔돈들을 모두 셀 수 있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은 잔돈 세는 기계가 없다. 기계가 있는 은행에 구좌를 하나 열거나 수수료를 내며 잔돈 세는기계를 사용하기 싫어 항상 손으로 일일이 세어서 은행에 입금한다. 생각 보다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예방에도 좋을듯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별다른 일도 없는 내게 재미도 준다.

한참 이 작업이 끝나고 손을 들여다 보면 손이 시꺼매져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일른 손을 씻어야 한다. 여러사람을 통하여 이 돈이 모아졌으니 과정도 더욱 더 소중한 것 같다. 일

일이 모금통에 기부하신 분들, 또 이 무거운 잔돈을 끄끌거리며 열심히 들어다가 성당에 갖다 주시는 분들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업소이름들은 저절로 기억에 담게 된다. 또 모금통을 가지러 가면 반갑게 맞이하시며 얼마 못 모았다고 미안해 하시며 수표를 써 보태 주시는 분 등 이제 각각 가게에 잔돈 모이는 스타일까지 알게 되었다. 지폐가 제법 많이 모이는 곳 (아마 직접 업소주인께서 주머니를 털으신게 아닌가 한다), 25센트가 가득 찬 모금통, 1불짜리 동전이나 오래된 흔하지 않은 동전이 많은 곳 등등...

'사랑의 모금통'에 참여해 주신 업소들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모아 주신 잔돈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나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다.

얼마 전 한 업소에 모금통을 가지러 갔다 모금통 담당인들이 너무 성의없이 일을 처리한다고 꾸지람을 들었다.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서로 협조하여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

또 업소 여러분들 중 업소 사진이나 잔돈 모으시면서 겪은 보람된 경험이나 과정 등등을 다음 회지에 실을 수 있도록 보내 주시면 좋겠다. 어떤 업소는 너무 먼 장소라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다. 성당에 모금통만 얼른 내려놓고 가지 마시고, 서로 서로 얼굴이라도 알고 지낼 수 있게 업소사진, 주소 (집 주소 말고)와 전화번호도 남겨주시면 좋겠다.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만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필리핀 ‘어린이 집’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라인댄스 초급 2반 DVD 제작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이 불우이웃돕기 기금 모금을 위한 라인댄스 초급2반 DVD를 제작중이다. 5월 초 출시될 라인댄스 초급 2반 DVD 판매 수익금은 현재 필리핀 뻬아따스의 빈민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기금으로 전달된다. 지난 연말부터 뻬아따스 돕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카리타스에는 현재 4천여 달러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의 편집인은 초급 2반 DVD편집에 한참 바쁘신 홍 세실리아 강사를 찾아 라인댄스 DVD제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카리타스: 안녕하세요? 현재 성 정바오로 전주교회에서 성가대 단장을 맡아 주시는 등 봉사활동을 많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라인댄스 초급 1반 DVD 제작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홍 세실리아: 아시다시피, 한국의 겨울은 무척 춥습니다. 더군다나 독거노인들은 외로움과 함께 육체적으로도 겨울을 지내시

기가 고통스러우실 것 입니다. 라인댄스 초급 1반 DVD를 제작,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그러한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을 해 드린다는 카리타스의 제안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카리타스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만사를 제치고 제작에 힘썼습니다. 다행히 첫번 DVD가 좋은 호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리타스: 초급 1반 DVD판매 금액 6000여 달러를 지난 연말 강원도 지역의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으로 보냈었지요. 혹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데 영향을 주신 분이 주위에 계신가요?

홍 세실리아: 어려서부터 남을 돕고 나누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볼 때 마다 그러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리타스: 참으로 훌륭하신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이번 라인댄스 초급 2반 DVD제작도 같은 마음으로 임하셨겠지요?

홍 세실리아: 초급 2반 DVD의 판매 수익금이 필리핀 뻬아따스의 빈민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시키기 위한 어린이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 꽤나 승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그곳 아이들은 부모도 없이 굶주리고 기거할 곳조차 없어 방황해야 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카리타스: 수강생들은 어떻게 모으셨나요?

홍 세실리아: 지난 초급 1반 수강자들에게 이번에 DVD를제작하려는 취지를 전했더니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돕겠다는 좋은 목적이기에 힘을 모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카리타스: 강습하시는 중 재미있는 일화도 많았을텐데요. 몇개 소개해 주시지요.

홍 세실리아: 8주간의 강습을 통해 열심히 배워 나가는 수강생들의 열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수강생은 새벽 6시에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오시는데, 저녁식사

만 마치면 녹초가 되곤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라인댄스 강습을 받으면서부터 저녁식사 후 설 틈도 없이 음악을 틀어 놓고 배운 스텝을 열렬히 연습하는 바람에 남편까지 감동을 받았답니다. 또 어떤분은 식구들 다 재워놓고 (그제야 내 시간이잖아요) 배운 스텝을 새벽 3시까지도 마다하고 맹연습 하시는 분도 있었지요. 스텝들이 잘 생각나질 않고 연결이 되지않을 때는 다른 수강생에게 전화를 해서 서로 알아내고 또 만나서 연습을 하는 등 수강자들의 열정적인 동참이 참으로 감동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어린이를 도울 수 있다는 마음들이 모인 것이기에 더욱 감사해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카리타스: 수강하신 분 중에 배우신 라인댄스를 통해 봉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인지요?

홍 세실리아: 저의 마음을 움직여준 일화로, 주중에는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일을 가기 위해서 아침 3시에 일어난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토요일에 있는 이 Class를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며 저에게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수줍은 듯이 물었어요. 앞으로 열심히 잘 배워서 노인들께 댄스를 가르쳐 드려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배운 것을 노인들을 위해 현재 봉사하고 계신 수강생도 계십니다.

카리타스: 정말 홍 세실리아 강사님과 수강자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담긴 DVD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홍 세실리아: 가장 미안한 것은 라인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8주 강습 기간 도중에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DVD제작을 위해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어 받아들이지 못한 점이지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기회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원주 카리타스가 저의 조그마한 힘이 천진한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짓는 것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카리타스: 감사합니다. 이번 DVD도 좋은 호응을 받아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강사님과 수강생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큰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라인댄스에서 배운 봉사하는 마음

김옥순 <라인댄스 수강자>

라인댄스 초급 1반과 2반 수강을 끝냈다. 배우는 과정과 홍보용 DVD제작에 참여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DVD판매 수금액이 불우이웃 돕기에 쓰인다는 더욱 흐뭇한 마음이다.

60대 중반인 나는 뇌종양으로 9년간 고생했다. 세 신경이 얽혀 혹이 생긴, 수술하기 어려운 종양이었는데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 덕분에 수술과 수술 후 회복이 잘 되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건강한 삶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메릴랜드에 있는 시니어센터에서 요가

와 라인댄스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가는 잘 알기 때문에 가르칠 자신이 있었지만 라인댄스는 아무래도 부족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 신문에서 카리타스의 라인댄스 강습 기사를 보고 반갑게 수강신청을 했다.

배우고 싶었던 라인댄스도 좋았지만, 그보다도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는 수강자들의 친절함과 화기에 애한 분위기가 좋아 만사 제쳐놓고 열심히 참석했다. 나중에는 토요일이 늘 기다려지기도 했다.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봉사자들의 열정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홍세실리아 강사님의 열정과 봉사정신에 감명을 받았으며, 나 역시 그 분의 봉사정신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열심히 작은 봉사라

도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라인댄스는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는 춤으로 동작이 단순하고 쉬워 성별 및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파트너 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강한 운동이라 많이 권장하고 싶다. 제작된 DVD는 집에서 연습하고 운동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DVD 제작에 한 몫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열심히 배운 라인댄스를 시니어센터에서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DVD를 보급하며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되찾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메릴랜드 집에서 강습장까지 1시간 운전 거리인데 매주 토요일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강습장까지 데려다 주고 라인댄스를 배우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 준 남편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버지니아의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얼마 전 본지에 한국의 태백지역이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독거노인에 대한 후원요청을 해왔다. 사순시기가, 절악한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도움은 크리스찬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되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강원 남부지역의 가뭄은 주민들, 특히 독거노인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 사북, 고한, 태백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의 가뭄은 40여 년 만에 찾아온 혹독한 가뭄이다. 3월 초 비가 조금 내렸다고는 하나 이번 겨울 강우량의 평년의 70%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에 호스를 연결하여 생활용수를 조달하기도 하고 외부 물탱크에 호스를 연결하고 모터를 돌려 집안으로 물을 공급하기도 하였으나 추운 겨울 날에는 호스가 얼어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사북 본당 신자인 박안나(77)씨는 “한참 단수가 되었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물통을 들여다 줬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결국 외

지 않은 물이 많으며 정수 된 물이라 하더라도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 어떤 곳에서는 수도를 겨울에 얼어서 쓰지 못하다가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녹물이 많이 나오곤 한다. 생활 용수 즉 씻고 설거지하고 화장실에서 쓰는 물 공급은 겨울보다 나아졌지만 먹는 물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태백 시청 상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장성

생수 6개를 가져 갈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과 달리 연세 드신 노인들에게 이것 역시 벅찬 일이다. 어떤 노인들은 집에서 물을 끓여 먹는 것조차 힘겨워 하다 보니 ‘정수가 잘 되지 않은 수돗물이나 아무 물이나 드시게 되는데 전염병이 들까 걱정입니다’라고 사북성당의 배다니엘 신부는 염려한다.

태백 지역에서는 지난 1월부터 1200여 가구

수 없으며 더운 물을 쓰자면 부탄가스에 데워 써야 하므로 가스비도 많이 나온다고 한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오는 5월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아마도 장마기인 6월이나 7월까지의 가뭄 해소가 안 될 것 같다는 예보도 있다. 사북, 고한, 태백의 식수원인 광동댐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



태백지역 독거노인 식수공급 후원 시급

40여 년 만의 혹독한 가뭄으로 주민들 어려움 겪어



부탱크에서 직접 물을 길어 올 수 밖에 없었는데 한 겨울에 길이 얼기라도 하면 노인들은 골절상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봄이 되니 이런 문제는 해소되었고 얼었던 수도관들도 녹아 급수가 조금은 수월하게 되었다. 물차들이 정선과 동면, 함백 등에서 물을 실어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나 혹은 정수장이다가 물을 실어 날라다 주면 그곳에 물을 모았다가 수도를 통해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외지에서 가져온 물은 정수되

본당 김 안드레아 씨는 ‘하천이 말라가면서 바닥에 있는 물까지 퍼올리다 보니 물 밑의 찌꺼기나 모래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물은 수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주민들이 먹는 물은 각계에서 지원하는 생수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노인들은 이 생수를 운반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먹을 물을 지원 받으려면 읍사무소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고 2리터짜리

가 3시간씩 제한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마다 급수시간이 정해져 있어 ‘미사시간’이나 단체 회합시간에도 신자들이 물을 받기 위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규정 신부(원주교구 장성본당 주임)는 말한다. 태백시 장성동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루치아(68)씨는 물을 받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며 3시간 남짓 받은 물을 하루 종일 사용한다. 따라서 물 사용량이 많은 세탁기는 돌릴 엄두도 못 내고 수세식 화장실은 전혀 사용 할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자 하는 분은 평화신문 미주지사나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을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미주 평화신문)

◇후원신청:

Caritas Wonju
(수표는 Caritas Wonju 앞으로)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문의: (571) 432 9868

녹음도서를 소개합니다



유자경 〈카리타스 운영이사〉

녹음도서는 노안이나 난독 등으로 책을 읽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테이프나 CD등의 매체에 음성으로 녹음하여 들을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서울에 있는 성동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녹음 도서를 만들어 보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녹음 도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안, 안구 건조증 등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겪는 사람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지관에서는 녹음 도서를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에 공급함으로써 녹음도서의 혜택을 미국에 사는 해외 동포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녹음도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에 널리 보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재단에서는 녹음 도서를 보급 할 때 50세 이상의 노안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의사의 난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녹음도서는 복지관에서 인터넷으로 음성 파일을 보내면 복지재단에서 받아 CD에 담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지는데, 책의 길이에 따라 CD 수가 1장 (1시간 정도)부터 10여장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현재 보급하고 있는 녹음도서는 종교, 수필, 상담, 신앙 분야에 걸친 40여권의 책과 기도문이며 (목록 참조) 원하시는 도서를 신청하면 녹음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급하고 있는 녹음도서 몇 권을 소개 합니다.

녹음도서 신청문의: 703-539-9212, 571-432-9868

상처와 용서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출판)

예수회 송봉모 신부의 '성서와 인간' 시리즈 첫번째 책으로 송봉모 신부가 사목자로 고통

을 겪는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이 관계 개선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돕기 위해 쓴 글이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 받았을 때 상대방을 왜 용서해야 하고 그러한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예시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주제인 '용서'는 세상에서 제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 용서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야말로 용서의 시작이자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용서는 쉬워진다. 용서한다는 것은 관계를 깨뜨린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베푸는 행위이다. 관계의 틈이 벌어졌을 때 회복을 위해 베품의 행위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는 용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용서의 원천이기도 하다 ... ‘우리는 종종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듣는다.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는가? 설사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실을 고친다해도 마음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본문 중에서)

저자인 송봉모 신부는 로마 성서 대학원에서 교수 자격증을 취득하고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신약 주석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신학대 신학대학원에서 신약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사랑 안에서 나를 찾다 (안셀름 그륀 지음, 성바오로 출판)

요즘 ‘사랑’이란 말만큼 흔히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대중 가수들은 너나 없이 사랑을 노래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이 단어를 자주 의례적으로 사용하곤 한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그토록 자주 말하고 듣지만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랑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 채 그냥 머릿속에 머물고 말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그윈 신부는 ‘사랑’을 넘어서서 그 안에 존재하는 ‘나’와 ‘하느님’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고, 그래야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보게 된다고 말한다. 더불어 사랑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만큼 그 분을 떠나서는, 즉 인간적인 사랑에 의지해서는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 시대 모든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나는 독자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한 선입견들을 한 쪽으로 제쳐 놓고, 사랑의 신비에 폭 빠져 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안에, 그리고 주변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본문 중에서)

현재 독일 뮌스터 슈바르자크에 있는 베네딕도 수도원 원장 신부로 있는 저자 안셀름 그윈 신부는 신학 박사로 성경과 사막 교부들의 가르침, 용의 분석 심리학 등을 연구하여, 현대인에게 그리스도교 영성을 소개하는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나를 웃게하는 당신 (안미경, 김호경, 신성용 지음, 바오로딸 출판)

오랫동안 서강대학교에서 ‘결혼준비특강’을 진행했던 안미경 데레사, 김재훈 토마스 부부와 예수회 신성용 크리스 신부가 함께 쓴 책으로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결혼생활에 얽힌 에피소드를 통해 관계를 잘 이끌어주도록 하는 대화로 이루어졌다.

각 장마다 아내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 대화가 잘 될 때와 되지 않을 때의 사례를 통해 부부간에 참다운 대화를 나누는 마음이 짐과 더불어, 독신자로서 함께 할 줄 아는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준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기’, ‘마음의 상처 다루기’, ‘사랑은 결심하는 것’, ‘결혼에 대한 오해’ 같은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들을 실제 체험한 저자들의 이야기는 읽는 이들의 흥미와 공감을 일으켜준다.

저자 안미경 데레사는 현재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며 서강대학교에 출강



하고 있다. 김재훈은 데레사와 ‘결혼준비특강’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 발표할 글을 썼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

성용 신부는 성과 결혼의 참 의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26년 동안 졸업반 학생들을 위해 ‘결혼준비특강’을 했다. 현재 예수회 회원과 일반인들의 영성지도를 맡고 있다.

녹음도서 목록 (2009년 4월 현재)

번호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녹음자	비고/주제
1	성체성사에서 삼위일체까지	마리아 빈체시오 베흐나도 신부	기쁜소식	류제성	CD 4장/신앙
2	용서의 과정	윌리엄 A매닝거	바오로딸	김애진	CD 5장/신앙
3	사랑의 기쁨	성 알폰소 마리아 리구오리	바오로딸	최애영	CD 4장/신앙
4	봉사의 스캔들	장 바니에	바오로딸	김호경	CD 3장/신앙
5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	안셀름 그윈	성서와 함께	홍혜경	CD 5장/신앙
6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에다	헨리 나웬	성바오로	정인	CD 2장/신앙
7	상처와 용서 (성서와 인간 1)	송봉모 신부	바오로딸	김미선	CD 3장/신앙
8	광야에 선 인간 (성서와 인간 2)	송봉모 신부	바오로딸	홍혜경	CD 2장/신앙
9	생명을 돌보는 인간 (성서와 인간 3)	송봉모 신부	바오로딸	신애경	CD 3장/신앙
10	고통 그 인간적인 것 (성서와 인간 4)	송봉모 신부	바오로딸	윤미경	CD 3장/신앙
11	대지대비하신 하느님 (성서와 인간 5)	송봉모 신부	바오로딸	최애영	CD 3장/신앙
12	본질을사는 인간 (성서와 인간 6)	송봉모 신부	바오로딸	김애진	CD 2장/신앙
13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간 (성서와 인간 7)	송봉모 신부	바오로딸	나미숙	CD 3장/신앙
14	관계속의 인간 (성서와 인간 8)	송봉모 신부	바오로딸	김호경	CD 3장/신앙
15	회심하는 인간 (성서와 인간 9)	송봉모 신부	바오로딸	임순남	CD 3장/신앙
16	일상도를 살아 가는 인간 (성서와 인간 10)	송봉모 신부	바오로딸	송애경	CD 3장/신앙
17	세상 한 복판에서 그분과 함께 (성서와 인간 11)	송봉모 신부	바오로딸	윤서영 김미선	CD 3장/신앙
18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세르지오 바스티아넬	생활성서	최정희	CD 7장/신앙
19	모든것이 당신의 것 입니다	류혜옥	바오로딸	손태욱	CD 5장/신앙
20	사랑 안에서 나를 찾다	안셀름 그윈	성바오로	이송미	CD 4장/신앙

번호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녹음자	비고/주제
21	사랑한다면 투쟁하라	안셀름 그윈	분도	김화정	CD 7장/신앙
22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더글러스 J 브라이언	성바오로	류제성 이송미	CD 4장/신앙
23	내 안의 하느님 자리	멜빈 메티스	바오로딸	송애경	CD 2장/신앙
24	믿음	안셀름 그윈	성서와 함께	임순남	CD 1장/신앙
25	이름	안셀름 그윈	성서와 함께	임순남	CD 1장/신앙
26	나를 웃게 하는 당신	안미경, 김재훈 신성용	바오로딸	나미숙, 김호경 윤미경	CD 6장/상담
27	길에서 만난 행복	루이스 알렉산드레 솔라노 로씨	바오로딸	공동녹음	CD 4장/수필
28	그에게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우슬라 플레밍 엠클	바오로딸	나미숙	CD 7장/신앙
29	현존하시는 하느님	라디슬라우스 보로스	바오로딸	공동녹음	CD 9장/신앙
30	나는 네 친구야	박종인 엠클	시공 주니어	나미숙	CD 1장
31	사람을 살려라	안셀름 그윈	성서와 함께	손태욱	CD 4장/신앙
32	너는 내 아들	로이 레제르	성바오로	공동녹음	CD 10장/신앙
33	교황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베네딕토 교황	-	임순남	CD 1장/신앙
34	십자가의 길	-	-	이송미	CD 1장/신앙
35	천 개의 찬란한 태양	할레드 호세이니	현대문학	공동녹음	CD 13장/소설
36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김수환 추기경	평화방송 평화신문	공동녹음	CD 9장/신앙
37	용서하는 사랑 용서받는 사랑	스즈키 히데코	성바오로	이송미	CD 3장/신앙
38	신앙의 인간 요셉	송봉모	바오로딸	공동녹음	CD 7장/신앙
39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아돌포 케사다	바오로딸	윤미경	CD 2장/신앙
40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스님	문학의 숲	채영교	CD 5장/불교



“필리핀 빠야따스에 사랑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가밀라 수녀

〈필리핀 빠야따스 선교 카리타스수녀회소속〉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를 가면 퀘손시티의 쓰레기산 마을 빠야따스(Payatas)에 이른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판자집과 사람들이 버린 오물과 쓰레기로 덮힌 산 곳곳에 쓰레기가 썩으면서 일으키는 화학작용으로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 속에는 희망과 함께 하느님이 살아 있었다.

이곳엔 2001년부터 카리타스수녀회 소속 수녀들이 필리핀 최대의 빈민 지역인 빠야따스에 파견되어 현재까지 이곳 주민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빠야따스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녀마주이거나 일용잡부로 동이 트기 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쓰레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비닐, 플라스틱, 병 등)을 수거하며 살아간다. 하루종일 재활용품을 주워 1kg을 모아도 고작 300원을 벌 수 있을 뿐이다.

2003년 여름에는 홍수로 쓰레기 산이 무너지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이 약 260여명이 사망했다. 공식 집계도 그렇다는 것이지 확실한 사망자수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은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끊임없이 매일 산으로 올라 쓰레기를 헤치며 하루의 식량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열심히 허리를 구부린다. 가난한 이곳의 사람들은 하루 한 끼나 두 끼만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나마 그 한 끼마저도 없는 날이 있다. 이 기본적인 욕구마저 채우기가 쉽지 않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태연한 척 해 보지만 이들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아프기만 하다.

썩은 음식물과 쓰레기더미에서 나오는 악취와 독한 구정물은 참으로 독해서 피부에 닿으면 즉시 빨갛게 변하여 가렵기 시작한다. 그들은 보통 신발인 고무 슬리퍼를 신고 구정물속에서 담겨져 있으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온 몸에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병균은 가족들에게 쉽게 퍼져서 아이들은 고름과 열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저희 수녀들과 이곳 한인 성당 자매님들은 매주 목요일 이곳을 찾아가 점심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값이 싼 시간에 음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도착한다.



새벽 2시부터 일을 하고 있는 팔리핀 봉사자의 도움으로 재료를 사서 싣고 타이파스에 도착하면 250명 정도 아이들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팔리핀 봉사자들과 함께 두 번에 걸쳐 밥과 반찬을 만든다.

그 동안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며, 뒷 편에서는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를 감겨 준다. 이곳은 대부분의 가족이 수도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수요일에 세 드림의 물을 사야 하고 이 물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의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을 시켜준다.

그 동안 성당 안에서는 지회 수녀회 지원 수녀 한 명과 수련 수녀 한 명이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 또 한 쪽에서는 손과 다리, 머리에 생긴 각종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피부연고를 발라주는 등 간단한 치료만을 하고 있다.

하루는 한 여자아이가 그 무더운 날씨에 털모자를 쓰고 있어 벗겨보니 머리에 난 피부병이 부끄러워 모자를 쓰고 있었다. 모자를 빼앗아가 다시 쓰는 아이를 겨우 달래 머리를 깎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연고를 발라주었고 매주 그 아이에게 다시 치료를 해주었더니 셋째 주에는 거의 상처가 치료되었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다.

또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고 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 이곳 수녀들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의 명단을 받아서 시청과 관계 기관들을 다니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한다.

우리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 집에서는 입을 젖도 먹은 젖도 없는 이곳 타이파스의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끼라도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고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배움의 길을 터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작은 바람이다.

현재 우리는 타이파스 성당부지를 얻었으나 어린이집을 짓는 공사가비가 엄청나다.

공부방, 식당, 그리고 자그마한 놀이터를 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약 2500만원~3000만원(약 2만5천달러)의 금액이 나온 상태이지만 마음뿐이지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큰 금액이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거리에서나 쓰레기



더
미
속
에서
음식
을
찾지
않고,
밝
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
지
않을
까
하는
희
망속에
기도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타이파스는 어린이 집짓기 도움투실 분

주소: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표는 Caritas Wonju 로 쓰시면 됩니다.

메모란에 (어린이집짓기 후원)이라고 써주세요

**비영리 기관이므로 세금공제됩니다.

문의: 571-432-9868



제 2회 불우이웃돕기 미용이벤트

머리 깎고 불우이웃도 돕고...

정영희 <카리타스 편집인/한국일보기자>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 주최 불우이웃돕기 미용 이벤트가 21일과 22일 양일간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페어팩스 소재 성 정바로로 한인성당 교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느미라지 토탈 헤어살롱 캐서린 박 원장을 비롯한 13명의 헤어디자이너가 자원봉사로 참여, 70세 이상 노인들에 무료 헤어컷을 제공하는 등 저렴한 가격으로 헤어컷을 실시했다.

행사장에서 이발하고 기금을 보탠 곽호인 신부는 “정부기관 보다는 후원자들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복지기관들이 심각한 불황속에서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는 고운 사랑의 마음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5월 어머니날을 앞두고 헤어·스킨케어·행사 및 파티 스페셜·문신제거 등 각종 미용상품권과 샴푸, 립스틱과 아이 새도우 등 화장품도 특별 할인 판매됐다. 또 캐서린 박 원장의 무료 피부관리 세미나와 메이크업 강좌도 진행됐다.

카리타스 유홍열 회장은 “느미라지의 특별후원으로 행사장에서의 헤어컷 수입 전액과 상품권 판매액의 40%는 불우이웃돕기로 기부된다”며 “이벤트 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1만여달러로 비슷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리타스는 미용이벤트를 통해 1만1천달러의 기금을 조성, 장애인 시설인 정선프란치스코의 집과 노인요양원, 황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녹음도서, 라인댄스 DVD, 선물용 허브차도 판매됐다.

또 카리타스 회원과 성모회, 관리부 회원 20여명이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 데려사 행사준비위원은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들이 모여 행사가 성공적이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현재 카리타스는 500여명의 후원회원을 두고 한국 및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의 불우이웃 돕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용이벤트 결과보고

총 수입:	\$16,853
상품권 판매액:	\$11,900
헤어컷 수입:	\$1,822
미용상품판매:	\$2,098
카리타스 물품판매:	\$1,023



느미라지 캐서린 박 원장은 헤어컷 전액과 상품권판매액의 40%를 불우이웃돕기금으로 \$6,582 도네이션 해주시고, 미용상품 관련 품목을 원가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이틀간 계속 수고해주신 느미라지 캐서린 박 원장님과 직원여러분 13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 뒤에서 수고해주신 많은 자원봉사자님께 감사 드리며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 워싱턴의 각 언론사(중앙일보, 한국일보, 주간위싱턴, 주간연예, WBS 워싱턴 TV)와 신문전면 광고를 후원해 주신 지구촌마켓, 그랜드마트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 어우러져 카리타스 행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 곽호인 신부님의 유홍열회장 그리고 이사팀 모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원주카리타스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는 기쁨의 편안함

원주 카리타스를 후원하면서

캐서린 박

〈느미라지 토털헤어살롱 원장〉

그들의 얼굴엔 천사 같은 해맑은 표정 그 자체다. 내가 느끼는 그 이상의 보람보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식사를 맡아 챙겨주는 그들의 모습은 작은 봉사로 후원하는 모습이라 기연 너무나 감동을 준다. 저런 모습이 참 모습이며 참 신앙인이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매년 이 행사를 주관하는 원주 카리타스의 후원자님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나지만 기뻐하고 봉사하는 우리네보다 정말 진실되고 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자세 감동 그 자체였다. 올해도 우리는 불경기를 등에 지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직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웠다. 힘든 그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기뻐고 우리의 봉사가 많은 이들에게 일깨움을 줬을 것이란 예기들을 들음으로써, 참 교육이 아닌 실천한다는 것에 기뻐고 함께 땀치고 더 더욱 돈독해 졌다는 점에 보람을 느꼈다.

경영자로서의 특별 난 교육이라기 보다 밑을 하지 않아도 모든 직원은 알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도 나의 길을 행하리라는 생각에 마냥 행복했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편안함을 아는 나는 나 스스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실천하려 한다.

때론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봉사를 할 수 있냐고 비아냥 거리지만 한번 실천해 보라고 하고 싶다. 하고 나면 그것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남편과 자식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흥분 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얼굴과 이름을 내놓지 않고 봉사하는 이들도 많지만 때론 많은 이들이 이러한 봉사를 알림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자극이 되는 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다음 대에도 분명 어떤 이가 나서주리라 믿으면서 나는 계속 더 넓히며 봉사할 수 있는데 까지 할 계획이다.

원주 카리타스는 분명 나에게 베풀고 사는 그래서 마음에 기쁨, 착함을 지닐 수

있는 그런 교육 더 엮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앙은 분명 가져야 한다. 어떤 신앙이든 간에 그 속에서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빛이 있는 듯 하다.

원주 카리타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도와줘서도 아니고 분명 힘이 있었다. 무엇일까? 참 신앙, 믿음, 사랑, 베풀음과 이러한 단어들이 떠 오를까?





“산타가 되어 주세요”

남정률 (서울 평화신문기자)

원주카리타스복지재단은 지난 연말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고자 '산타가 되어 주세요' 결연 캠페인을 펼쳤다.

결연 캠페인은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이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적은 눈송이 카드를 '선물 나무'에 걸어두고, 후원자들이 이를 가져가면서 20달러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연이 되면 눈송이 카드를 후원자 이름이 적힌 성탄 화환카드로 바꿔 달았다. 이 캠페인은 복지재단이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네팔의 학교 네 곳과 파푸아뉴기니의 카리타스수녀회등 결연소 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세 나라 기관 후원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환경이 너무 열악해 성탄 선물은 꿈조차 꾸기 힘든 어린이들이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산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자신의 사진과 함께 직접 산타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도록 했다.

원주카리타스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호인 성정바오르 천주교회 주임신부는 “네팔 아동 대부분은 크리스마스가 뭔지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라며 “이들이 원하는 선물은 큰 게 아닌 신발, 고복, 책가방, 밥솥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11월2일 성탄 임구에 세워진 '선물 나무' 두 그루 가운데 한 그루는 캠페인을 전개한 지 2주일 만에 모두 성탄 화환 카드로 바뀐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세 나라 어린이 758명 신청에 803명의 후원자가 나섰다. 눈송이 카드가 다 나가고 있는데도 산타가 되겠다고 나선 이들이 이어져, 도움을 받는 이보다 주겠다는 이가 더 많은 진풍경(?)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모두 1만6070달러(2,410여 만원). 복지재단은 이 기금을 아동들을 추천한 세 나라 복지기관으로 보냈고, 이들 기관에서는 어린이들(한국 217명, 네팔 377명, 파푸아뉴기니 164명)이 산타에게 받고 싶어한 선물을 구입해 성탄절에 전달하였다.

복지재단 이사장 박호인 신부는 “불행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 가장, 장애 어린이,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 선뜻 결연에 나서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네딸에도 산타가 오셨어요”

김지나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이 후원해 주신 산타클로스 선물 전달식은 이 행사에 참가한 세 곳의 학교에서 각각 열려졌습니다. 산파라니 스쿨에서는 인도 신부님이 오셔서 일일이 선물을 나누어 주셨고, St. Xavier's School에서는 로즈마리 수녀님, 레지나 아모리스 스쿨에서는 예수화 수사님이 맡아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행사 전에 신부님께서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와 크리스마스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이 행사를 위하여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산파라니 스쿨에서는 오전 9시 30분, St. Xavier's School에서는 11시, 그리고 레지나 아모리스 스쿨에서는 오후 1시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전달식에는 학부모님들과 주민들도 구경 왔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와 함께 산파라니 스쿨에서는 학예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이곳에서 겨울 나기가 쉽지 않은데 얇은 스웨터만 입고 오는 아이들이 늘 마음에 걸렸다는 베로니카 수녀님. 그래서 아이들 전체에게 겨울 교복용으로 겨울 지킴을 하나씩 사 주고 남은 돈으로 다시 스웨터, 신발, 운동화, 학용품 등을 사고, 축구공 등 운동 기구들은 학교에 두고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래 의도는 아이들이 산타에게 보낸 편지에 원하는 물건을 쓰게 하여 각 아동에게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었으나, 어느 아이에게 무엇이 더 절실했는지 수녀님과 담임선생님이 더 잘 아시기에 의논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발이 없어 매일 슬리퍼로 학교에 오는 아이에게는 베로니카 수녀님이 학교 신발을 따로 선물로 안겨 주셨습니다. 산파라니 스쿨은 신발은 다 샀고, 교복은 일단 재단만 한 상태입니다. 행사 후 교복과 신발은 수녀님이 일단 거두었다가 신학기에 각자에게 나누어 줄 예정이라 합니다. 잠에 가져가면 더



러워진다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어느 누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아이들은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작은 선물을 든 고사리 손들을 보니 가슴이 찡찡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산파라니 스쿨에서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에게

전해달라며 제 손에 쥐어주던 꽃들, 꼬깃꼬깃해 진 신문에 싸인 사탕 몇 알, 신문에 싸인 비스킷, 성탄 카드 등-

모두 다 제가 받아 왔습니다. 이 글과 사진으로 아이들이 산타에게 전하는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수녀님,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산타가 되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허~허~ 허~ 선물주러 왔단다~”

부스스~ 아이들이 눈을 뜬다. 곤히 잠든 우리를 왜 깨우냐는 표정이다.

선물을 주는 산타가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는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이 아니던가? 아홉시 시간을 보니 늦은 시간이다. 아이들도 성탄미사를 보고 산타를 기다리다 지쳐 잠든 것을 보니 늦게 온 것이 괜히 미안해진다.

산타 분장을 하고 잘 포장된 선물꾸러미를 지고 있는 가짜(?) 산타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산타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잠결인지라 아이들은 선물을 들어

볼 생각도 못 하는 것 같다. 그저 반짝 반짝 빛나고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나는 선물 포장지만 만져도 행복한 모습이다. 졸려서 반쯤 감긴 눈과 잘 벌어지지 않는 입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니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한 명씩 한 명씩 주고 나니 선물이 줄어든다.

선물이 줄어드는 것 만큼 반대로 아이들은 행복해진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혹은 마음가짐도 줄여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본다.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미소 한 번이면 족할 듯 싶은데 말이다.

산타 옷을 벗고 선물 보따리를 정리하면서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 성탄절에만, 그리고 산타의 옷을 입고 선물을 줄 때만,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 본다.

날이 추워지거나 어떤 행사나 일이 있을 때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찾아 가는 건 아닌지- 못내 아쉬운 제, 선심성에만 치우친 성탄절이 아니길 바래 본다.

중증장애인시설 '천사들의 집' 산타

• Twelve Seconds of History •

인류 첫 비행의 현장에 가다

이소영

〈카리타스 편집인〉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 편집장

미국지도를 보면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 앞바다에 마치 해성의 자취처럼 가늘고 길게 뻗어 내린 선이 있다. 바로 아우터 뱅크스(Outer Banks)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대륙과 평행으로 길게 형성돼 방파제 역할을 한다. 길이가 172km에 이르는 아우터 뱅크스는 많은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안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보면 파도습, 바닷새 소리와 함께 도로 양 옆으로 펼쳐지는 원시적인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아우터뱅크스는 두 가지로 유명한다. 첫째는 구불진 새하얀 모래벌판과 바람방향으로 누운 키작은 초목들과, 해양산림이 뒤섞인 독특하고 수려한 경치다. 둘째는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가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이용해 하늘을 난 장소라는 사실이다.

아우터 뱅크스의 지형과 기상 조건

이곳에 직접 와보면 라이트 형제가 오하이오(Ohio)주에서부터 왜 굳이 이곳까지 와서 비행실험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군데군데 솟아 있는 모래언덕들, 드넓게 펼쳐진 모래벌판, 세찬 바람 등, 지형과 기상조건이 비행실험에 안성맞춤이다.





나는 이들 형제가 3년에 걸쳐 비행실험을 했던 모래벌판 한 중앙에 우뚝 솟은 킬데빌힐스(Kill Devil Hills)라는 언덕에 올라가봤다. 라이트 형제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 이 언덕에서 대서양 쪽을 바라보니 해변가에 즐비하게 들어선 해안 별장을 넘어 흐른 바다가 넘실거린다. 언덕 아래에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실험을 하면서 작업실과 격납고로 사용했던 허름한 목재건물 두 채와 그들이 사용했던 활주로나 한눈에 들어온다. 지금은 휴양지로 탈바꿈했지만 라이트 형제가 살았던 1900년대에는 대서양의 거친 파도에 밀려 좌초한 배들의 용골이 흉물스럽게 나뒹구는 해안을 따라 몇 십 가구가 웅기 쫓겨 모여 사는 작은 어촌이 불과했다.

처음 아우터뱅크스에 정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배가 좌초돼 해일을 쳐서 이곳에 이른 생존자들이었다. 미국에서 제일 높은 헤터러스 등대(Hatteras lighthouse)와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오크라코크 등대(Ocracoke Lighthouse)가 모두 이곳에 있을 만큼, 등대는 아우터뱅크스에서 필수불가결하다. 1600년대부터 시작해 좌초한 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난과선 1천500여 척에서 건져낸 유물들을 전시하는 대서양 무덤 박물관(The Graveyard of the Atlantic Museum)까지 있을 정도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실험을 했던 모래벌판은 현재 푸른 초원으로 바뀌어 있다. 대서양 쪽 해안에서 부는 강풍으로 인해 킬데빌힐스 언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잔디를 심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첫 비행의 현장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아치던 1903년 12월17일, 바로 이 언덕에서 인류 최초의 비행기가 이륙했다. 36세의 윌버 라이트(Wilbur Wright, 1867~1912)와 32세의 오빌 라이트(Orville Wright, 1871~1948)가 제작한 글라이더(The Flyer)호가 12초 동안 3.6m 상공에서 36m 거리를 비행하는데 성공했다. 미미한 시작이었지만, 사람을 태우고 자체동력으로 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

인 사건이었다. 오빌이 모래벌판에서 하늘로 비상한 지 12년 후, 비행기는 1차 세계대전에 투입돼 전쟁수행 방식을 바꿔 놓았고, 겨우 66년이 지난 1969년에는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쾌거를 이뤄냈다. 라이트 형제 본인들도 '12초의 비행'이라는 기술혁명의 과정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정도의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 비행이 전 지구를 하나로 묶는 세계화를 촉발시킨 그 시작이었음을 알아본 사람은 몇이나 됐을까?

A: "We have a free day on the Outer Banks. Let's check out the Wright Brothers Museum."

아우터뱅크스에서 하루 여유가 있으니까 라이트형제 박물관에 가보자

B: "Better yet, let's take a hang-gliding lesson on the beach and pretend we can fly."

박물관보다 해변에서 행글라이딩 레슨 받고 하늘을 날아보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이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레이스 리 <윌리엄 & 메리 대학 1학년>

하이티에 다니 온 제와 제 친구들은 하이티 사람들의 위대함과 풍요로운 문화에 계속 감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이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 줄 수 있구나.

저는 지난 겨울 방학 동안 제가 다니는 대학의 일곱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하이티의 토몬드 (Thomonde)로 봉사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풍요로움과 빈곤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이티에 도착하여 처음 방문한 곳은 하이티의 수도인 포트-오-프린스 (Port-au-Prince)에 위치한 데레사 수녀님의 영양실조 아동센터 (Mother Theresa Malnutrition Center)였습니다. 하이티 도착 후 불과 몇 시간 내에 가난의 비참한 결과를 직접 체험한 셈이지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캄캄한 시멘트 방에 수십개의 아기 침대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들이 살아온 짧은 2년여 세월 동안 미국에 사는 우리들 대부분 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은 듯 한 아이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극심하게 영양부족이고 많은 경우 성장부진인 아이들은 다른 무엇보다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팔에 안고 그들의 미소를 보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 중에서 가장 보람있고 또한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하이티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숙소인 토몬드의 데코스트 대학 (College Decoste)에서 보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소중한 수업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 배운 것이지요.

그 작은 도시에는 전기가 들어 오지 않아 교실이 아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는 밖에서 나가서 봐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수업시간 동안 잠잠이 된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시험을 밖에서 보겠다고 할까요? 미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는 반면, 하이티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주 큰 축복처럼 여깁니다. 아마도 미국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이티에서는 교육 그리고 배운다는 것이 보다 나은 삶, 아니 삶 그 자체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올림픽경기 수

상자, 가수, 또는 영화배우가 되는 것을 꿈꾸는 반면, 하이티의 아이들은 그들이 사는 나라를 좀 더 나은 나라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농부나 의사, 또는 기술자가 되길 꿈꿉니다.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그들의 국가, 국민 그리고 문화에 대하여 깊은 신념과 열정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와 제 친구들이 그들의 설명은 다 알아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미사증에 그들이 보여 준 믿음에 대한 신념, 노래와 춤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그들 사회에 대한 사랑 등은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흠바



닥에서 자고, 먹을 것도 없고, 심수도와 전기가 들어 오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사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하고 깊은 품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이티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제 관점을 바꾸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이티와 하이티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미소와 열린 마음으로 화선을 다해 하루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희망은 영원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하이티와 하이티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 드릴 것 입니다.

Haiti Reflection

Grace Le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My friends that have been to Haiti have constantly marveled about the greatness of its people and the richness of its culture. They have always mentioned how, for a nation that is one of the poorest in the world, it has so much to offer. This past winter break I was able to experience this juxtaposition of rich and poor for myself, as I joined together with seven other girls from my college to venture on a service trip to Thomonde, Haiti.

The first thing we did once we got to Haiti was visit the Mother Theresa Malnu-

ver, we stayed at the College Decoste in Thomonde, Haiti where we were given invaluable lessons on real matters of importance that you can't seem to find in a world as materialistic as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town has no electricity, the students at the school were forced to take their exams outside because their classrooms were too dark. If the power goes out during school hours in the United States, would any child have willingly gone outside to take a test? While many students in America complain and gripe about the smallest details of their schoolwork, for children in Haiti, even being in school is a privilege of the greatest kind. To an extent that is incomprehensible in America, for Haitians, an education is the gateway to not only a better life, but perhaps life itself. While American children aspire to be Olympic medalists, singers, and movie stars, the children of Haiti wish with all their might to become farmers, doctors, and engineers to help better their country. They have such great faith and spirit, and value more than anything else pride for their country, people, and culture. Even though my friends and I may not have understood everything they were saying in their explanations to us, we were able to see the conviction of their faith during the mass, the enjoyment of their song and dance, and the love that they found in their community. It is still inconceivable to me how these people have such strength of character when they sleep on dirt floors, have nothing to eat, and no running water or electricity to live off of.

I can't go so far as to say that going to Haiti has changed the way I live my life, but I can say that it has changed my perspective on how you should go about living. Haiti and its people have taught me that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living life one day at a time, with a smile, an open-heart, and an eagerness to try your best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Haiti has taught me to never give up and that hope lives on forever. In this light, without end, Haiti and its people will always be in my prayers.

trition Center in the capitol city of Port-au-Prince. Only a couple hours after our arrival into Haiti we were able to witness firsthand the inescapable consequences of poverty. In cement rooms, dimly-lit by the sunlight alone for lack of electricity, dozens of cribs were lined together with children that have already faced more adversities in their short two years of life than most people in America will ever encounter. The children, severely underweight and in many cases, underdeveloped, longed for love and attention more than anything else. Helping feed the babies, change their diapers, and holding them in our arms just to see them smile was simultaneously one of the most rewarding and heart-breaking experiences I have ever faced.

For the vast majority of our time how

스스로 할수 있는 간단한 몸침·수지침 및 침 자리

노명숙 베로니카 <Doctor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Dipl.O.M. (NCCAOM), L.Ac., RN>

침 술이란 가늘고 예민한 바늘 또는 유사도구로 인체의 일정한 부위에 자극을 주어 인체의 생체에너지를 조절함으로써 병을 치료, 예방하는 기술이다. 수지침은 전문적인 기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으로, 또는 손을 주무르거나 손톱으로 눌러 자극을 주어 치료하는 방법으로 직장이나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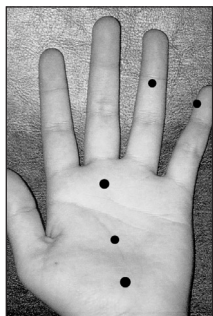
이제 미국에서도 침술은 “동양의 신비”를 넘어 생활 속의 치료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증상에 따라 스스로 간단히 할 수 있는 몸침과 수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급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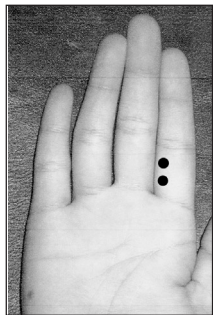
갑작스럽게 위가 아플 때, 가슴이 답답하며 배가 부를때, 장이 나빠서 설사할 때, 감기로 열이 많이 날 때, 상항 (검지 손가락의 손톱 바깥쪽 과 0.2 mm) 을 바늘로 따주어 피를 내면 효과가 있다.

소화 불량



P6, R12, R4, SP4 부분에 수지침을 30분 놓거나 압봉을 붙여두든지 아니면 자기 손톱 끝을 이용하여 눌러주면 편해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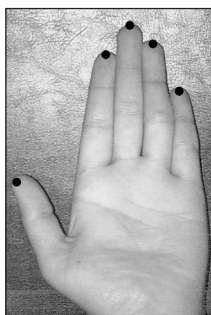
눈물·콧물이 많거나 건조할 때



목혈에 침을 놓거나 자기 손톱을 이용하여 강한 자극을 주면 좋아진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을때

원인 모르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 누구나 당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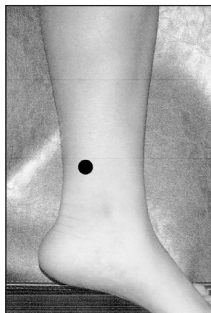


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는 빨리 911을 부르고나서 환자를 움직이지 말고 양쪽 손가락 끝을 바늘로 따주어 피가 나게 한다.

이 간단한 응급 처치가 가장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

또한 가장 배우기 쉬운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응급처치 기술을 평소에 배워두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쉽게 극복 할 수 있다.

폐경기 증상(Hot Flashes)



폐경기 초기나 후의 증상으로 갑자기 얼굴에 열이 나고 땀이 났다가 없어지며 추워지기도 하여 옷을 어떻게 착용해야 할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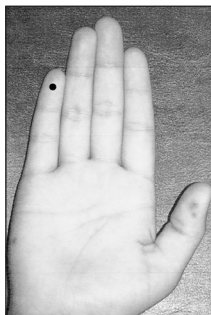
이것은 호르몬 불균형이 맞지 않아 생기는 증상으로 서양의술에서는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호르몬제가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을 유발하는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분은 그냥 1-2년 넘기면 된다고 고생하는 분도 있다.

이때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만나는 곳과 발목 안의 윗쪽에 침을 놓아주면 증상이 없어진다.

침을 맞을 수 없는 경우 자기 손톱을 이용하여 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섯번, 발목 윗부분은 시계 방향으로 아홉번 마사지를 자주 해 주면 지압의 효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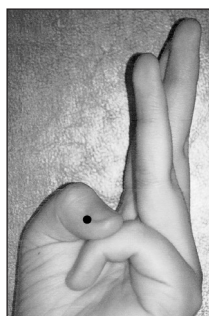
밤 눈이 어두운 경우(아맹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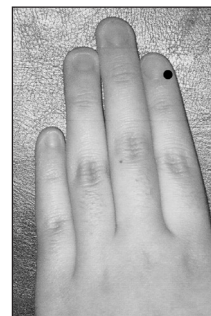
나이가 들어가며 밤 눈이 어둡고 운전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 침 자리를 자주 눌러 자극을 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코피가 날 때

소상 침 자리를 바늘로 따주어 피를 내면 된다.



목이 아플 때



귀 꼭지를 먼저 따주고 소상, 상양 침 자리를 따주면 편도선과 후두염, 감기 증상이 가빠 워진다.



음식 알러지



음식을 먹고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 두드러기가 생길 경우, 귀 꼭지를 빨리 따 주면 증상이 완화된다. 물 1컵에 식초 (유기농 현미식초) 1 스푼, 꿀 1스푼 과 레몬 1개 (즙 짜서)를 섞어 마시면 빠른 효과를 본다.

발목이 뼈어 멍이들고 부었을 때

먼저 뼈가 부러졌는지 사진을 찍어 확인해야 한다. 그냥 멍과 부기만 있을 경우, 멍든 부분을 사열 해 주고 팔을 갈아서 계란 흰자와 함께 개어 거즈를 놓고 발라 주거나, 홍화화 계란 흰자를 섞어 발라 주어도 부기가 빨리 가라않는다.

귀 맛사지

귀에는 우리 몸 전체가 들어있으므로 귀 침이 개발되었다. 아침 저녁 세수할 때에 귀 전체를 마사지하여 주거나 평상시에도 자주 마사지를 꾸준히 해 주면 몸의 혈액 순환을 순조롭게 해주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손 맛사지

손에도 우리 몸 전체가 들어있다. 또 어떤 현자들은 우주가 내 손바닥에 들어 있다고도 했다. 수지침도 이 이론을 이용하여 1971년 한국에서 유태우씨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한의학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수지침을 배우면 누구나 손쉽게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을 보호 할 수 있어 좋은점이 있다. 그러나 몸에 탈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의 소견을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모든 불편을 없애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손 마사지이다. 수시로 양 손바닥과 손 등을 마사지 해 준다든지 손가락들을 마사지 해 주면 우리 몸의 5장 6부를 마사지 해 주는 것이 되어 그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며 혈액 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건강을 유지 할 수 있게 된다. 건강유지나 질병의 치유는 단숨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올바른 영양 섭취와 함께 운동과 귀·손 마사지등 건강 관리를 잘 함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독거어르신들과 결식아동들에게 난방비 및 급식비 지원



장해영

〈원주가톨릭후원회 실장〉

미국 버지니아 원주카리타스 후원회에서는 지난 1월 고국의 독거어르신들과 결식아동들을 위하여 난방비 지원금을 보내왔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불황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교포사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보내 온 지원금이기때 더욱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지원금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각 기관 시설과 원주 교구 내 농촌 본당들에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40여 가정의 추천서를 받아 정리하며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속되는 농촌의 어려움 속에 독거 어르신들과 조손가정들의 궁핍한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가 하면,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교복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애태우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전혀 도움을 못 받는 어르신들은 차라리 자녀들이 없었다면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라도 받을텐데... 자녀들과는

연락이 두절된 채 병고에 시달리고, 빈곤과 외로움속에 강추위를 견디며 힘들게 살고 계셨습니다.

추천받은 가정 41세대에 난방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유류비의 상승으로 기름 한 드림 넣어야 한 달을 버티기 힘든 겨울이지만, 함께 하는 이웃이 있다는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국의 소외된 이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한 버지니아 후원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하느님의 뜻이 현재화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난방비 지원 사례

사례 #1 혼자 손자들을 13년을 키우며 보내신 할머니, 지금은 시력과 청력이 많이 좋지 않아서 손자들 돌보기도 힘든 상태다. 할머니께서 항상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뜻밖의 선물에 할머니께서 많이 좋아하셨다. 할머니께서는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고, 주유가 끝나고 모두 돌아갈 때까지 배웅해 주셨다. 지난번 아주 추운 날 외상으로 기름을 조금 넣었다고 하여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할머니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사례 #2 후원자님들께서 기름을 넣어 주신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꽤나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기름이 아까워서 그 동안 전기매트로 지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이제는 기름을 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결 밝은 표정을 지으시는 두 분의 모습에 따스한 선물이 되어 준 것 같아 담당자 스스로도 가슴 뿌듯하다.

사례 #3 오징어 찢는 일로 생활하시며 손녀를 돌보고 계시는 할머니. 연탄을 배달하던 날 할머니와 아이의 마음에 따스한 마음만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감사하다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면서 이렇게 받아도 되냐고, 아까워서 어떻게 때나며 연신 물으셨다.

삼척복지관 김영순 사회복지사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전 장안
우리 가치 어려운 사람 온 돕는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도와 주셔서
기름 값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 점 많고 많고 정말
다 우리들 도와 주셔서
치어터분 사감을 아주
와주세요 알았 조그만
제서고요

Love is Flower
후원자님께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현 이라고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에게 도와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님
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09년 2월 26일 목요일
대현 올림

Have A Nice
I said I love you and
And this I promise for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기름을 넣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기름을 넣어서
다들 해줘서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08년 2월 26일 목요일
안강현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초등학교에 다니
한세희 라고 합니다
저에게 연탄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겨울철 따뜻하게 잘 보내고
연탄 잘 씹게요
감사합니다-고
감사합니다

횡성군 노인복지센터 난방비 지원금 지급 현황

오 할머니는 청각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79세의 할머니입니다. 올해 들어 할머니가 치매증상을 보 이시며 전년대보다 활동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아들 역시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돈별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가정입니다.

지역도 횡성군에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적은 편입니다. 할머니의 인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머니는 난방을 위해 기름을 후원받으신 것을 모릅니다.

대신 아들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이며 차가 떠나가는 중에도 자리를 지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와상으로 누워계신 할머니를 손수 수발하시다가 2008년 7월 장기요양 보험의 시작으로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소 하게 됨에 따라 독거로 생활하시게 되었고 할머니와 함께 정부에서 받으시던 기초생활 급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생활은 하고 있으나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보내드릴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본인들 생활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서 할아버지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할아버지는 제계 통장에 150만원을 보여주시며 이게 전 재산이라며 걱정을 보이셨습니다. 이번 후원연계로 전기 난방을 하시는 할아버지의 전기세의 부담

을 덜어드려 할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무도병으로 인한 왼쪽다리 절단과 왼쪽 손을 심하게 떠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평생을 혼자 생활하셔서 장애를 가지시고도 자립심이 강하십니다. 기름을 넣어드릴 때 할아버지께서 이걸 어디서 넣어주는 거냐며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미국에 버지니아 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할아버지는 잘 알아듣지 못하십니다. 귀가 잘 안 들리고 생소한 단어라 그래서 미국에서 보내준 것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십니다. 멀리서 왔다고 그리고 얼굴에는 연신 미소가 번집니다. 기름을 다 채우고 갈 때까지 할아버지는 내뿜바람으로 밖에서 저희를 배웅해주셨습니다.

난방비를 후원받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미소는 기름을 넣을 때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설원 누비며 장애인에게 희망 전한다



에 그는 척수장애를 얻게 됐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좌절과 낙담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비록 장애의 몸이지만 하느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는 재활치료에 열중했다. 장애인 휠체어농구팀을 창단해

백 신부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신을 통해서 “다른 장애인들도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는 백 신부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장주

12년전 척수장애 판정 ... 낙담않고 재활 성공

동계체전 출전 ‘스포츠 전도사’ 역할 톡톡

1, 2차 시기 합계 1분28초74. 제6회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좌식스키 부문 6위. 장애인 동계 체전 3회 출전...

어느 스키선수 부럽지 않은 프로필의 주인공은 백학현(40·원주 장주기요셉재활원 원장) 신부다. 지난 2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정선에서 열렸던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관중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백 신부는, 이번 경기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애인들은 가파른 설원을 질주하는 그의 멋진 활강 모

습에서 자유를 배웠고, 국가대표선수들의 뒤를 잇는 자랑스러운 기록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무엇보다 신체적 장애를 뛰어넘어 “즐길 수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확인했다.

백 신부는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기록을 단축하고 기량을 발전시키며 스키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그에게 스키는 ‘인생의 파트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즐기 위해 스키를 배운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12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체서품을 받은 지 보름 만

재활치료를 하던 그는 우연히 2박3일의 스키체험을 하면서 스키의 재미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탁 트인 설원을 상쾌하게 가로 지르며 내려오는 스키의 매력에 매료됐다”고 스키 마니아가 된 동기를 소개한 백 신부는 “기량을 테스트해 보고 싶어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5회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때는 활강 도중 넘어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관중과 선수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기 요셉재활원의 ‘스포츠 전도사’다. 매주 금요일마다 원주시 생활체육협의회와 함께 하이킹, 등산, 에어로빅 등 원생들이 원하는 종목을 하나씩 선택해 꾸준히 배워나가며 건강관리와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원생들 스스로 터득하게 한다.

백 신부의 바람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백 신부는 “장애를 가졌다고 두려워할 것은 없다. 자신 스스로 즐겁다면 그것이 희망이다”고 말한다.

도민일보 박지영·임주원

북평에서 후원자님께 온 편지

고마우신 윤경자 후원자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래 미카엘 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저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아빠와 누나, 할머니와 같이 살아요. 누나와 저는 삼척 중앙초등학교에 다녀요. 할머니는 농사도 지으시고 나무와 꽃을 가꾸세요. 저희 분당에 나무를 심은 적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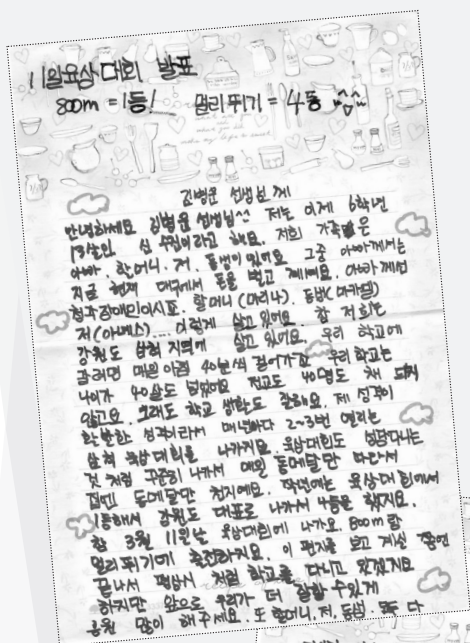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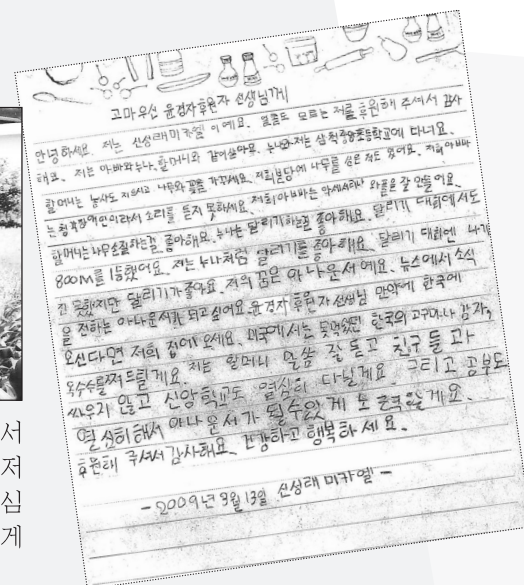
저희 아빠는 청각장애인이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세요. 저희 아빠는 악세서리나 와플을 잘 만들어요. 할머니는 나무손질 하는걸 좋아해요.

누나는 달리기하는걸 좋아해요. 달리기 대회에서도 800m에서 1등했어요. 저는 누나처럼 달리기를 좋아해요. 달리기 대회엔 나가진 못했지만 달리기가 좋아요. 저의 꿈은 아나운서예요. 뉴스에서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윤경자 후원



자 선생님 만약에 한국에 오신다면 저희 집에 오세요. 미국에서는 못먹었던 한국의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를 썰 드릴게요. 저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신앙학교도 열심히 다닐게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나운서가 될수있게 노력할게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09년 3월13일 신성래 미카엘



김병윤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김병윤 선생님? 저는 이제 6학년 13살인 신수진이라고 해요. 저희 가족은 아빠, 할머니, 저, 동생이 있어요. 그 중 아빠께서는 지금 현재 대구에서 돈을 벌고 계세요. 아빠께서는 청각 장애인이지요. 할머니(마리아), 동생(미카엘), 저(아네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참 저희는 강원도 삼척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 갈려면 매일 아침 40분씩 걸어가죠. 우리 학교는 나이가 40살도 넘었어요. 전교도 40명도 채 되지 않고요. 그래도 학생생활도 잘해요. 제 성격이 활발한 성격이라서 매년

마다 2~3번 열리는 삼척 육상대회를 나가지요. 육상대회도 성당 다니는 것 처럼 꾸준히 나가서 매일 동메달만 따와서 집엔 동메달만 천지예요. 작년에는 육상대회에서 1등 해서 강원도 대표로 나가서 4등을 했지요. 참 3월11일날 육상대회에 나가요. 800m를 멀리뛰기에 출전하지요. 이 편지를 보고 계실 즈엔 끝나서 평상시처럼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응원 많이 해 주세요.

또 할머니, 저, 동생 모두 다 열심히 성당에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랑 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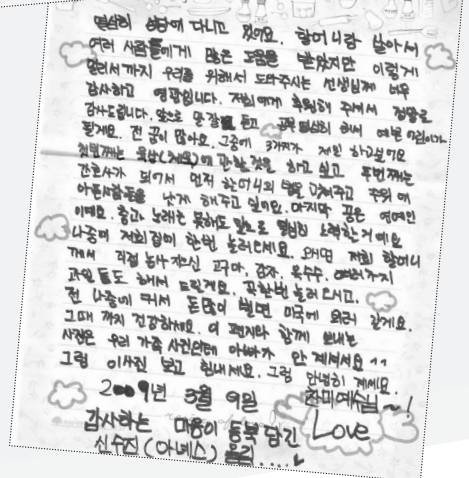
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렇게 멀리서 까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희에게 후원해 주

서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예쁜 어린이가 될게요.

전 꿈이 많아요. 그 중에 3가지가 제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육상(체육)에 관한 것을 하고 싶고 두 번 째는 간호사가 되어서 먼저 할머니의 병을 고쳐주고 주위에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싶어요. 마지막 꿈은 연예인 이에요. 춤과 노래는 못해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게요.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오시면 저희 할머니께서 직접 농사지으신 고구마, 감자, 옥수수, 여러 가지 과일들도 해서 드릴게요. 꼭 한번 놀러 오시고. 전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미국에 보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 사진은 우리 가족 사진인데 아빠가 안 계셔요..

그럼 이사진 보고 힘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찬미 예수님~!

2009년 3월9일 감사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Love 신수진(아네스)올림



고국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가정,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다른 친척집에 맡겨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는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달에 \$60씩 후원을 하며 아이들과의 삶을 함께 나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후원연결이 되면 결혼가정 아동에게 통장을 개설하고 \$50은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으며, \$10은 결연아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 703-994-3531 (한린다 안젤라)

목포 '작은 꽃들의 집' 공부방 결연 후원자님을 찾습니다.

이 헤레이아 수녀 <카리타스수녀회 소속>

충청기암 유달산 자락을 깎아 새둥지 같은 삶의 터전을 들어 앉히고 사는 목포 온금동. 꼬불꼬불 골목이 모두 다 비탈길인데다 이리저리 멋대로 휘어진 미로 이다. 목포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1960~70년대 풍경이 남아있는 동네인 이곳에 '작은 꽃들의 집' 공부방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골목의 작고 낮은 집들 대부분이 소위 '불량주거지'인 무허가집들이고 마찬가지로 '작은 꽃들의 집' 공부방 건물 역시 무허가 건물인 관계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공부방이다.

먹고살기 힘들어 고향을 떠나 사람들이 선장가 산등성이인 이곳에 자리를 잡아 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아이들은 이 골목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연탄장사, 생선장사, 벽돌공장, 선박공장일이며 부모들은 잠 안자고 일했어도 그들의 아이들 대부분이 초등교육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기만 했다. 가난과 무지는 대물림 되어 자녀들의 가정 역시 생활고에 시달려 폭행, 가출, 이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가정은 해체되고 결국 손자, 손녀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는 가

난한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보내졌다. 조손 가정들이다.

조손 가정의 아이들은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데다,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의 어려움까지 겪는다. 부양을 맡은 할머니, 할아버지 쪽도 건강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손주를 맡아 양육하는 데 힘겨운 상황이다. 부모 사랑의 적절한 손길을 받지 못하고 양육되고, 기초교육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됨에 따라 대부분의 조손 가정 아이들은 학습부진 상황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아이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점차 공격적이고 분노 증오심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게 됨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현재 '작은 꽃들의 집'은 카리타스 수녀들이 일하고 있으며, 초등 3학년~초등 5학년까지 18명, 중학생 2명해서 총 2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이 조손 가정이며 극빈자 가정의 아이들이다. '작은 꽃들의 집' 공부방은 아이들에게 방과 후 공부할 수 있는 장소와 더불어 간식, 저녁식사, 학습교재,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모래놀이 심리치료를 하여 정서



적인 혼란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고, 의료적인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과 상담, 문화적인 혜택들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이고 자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자 노력한다. 공부방 유지, 운영에 지속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다른 정기적인 지원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학습부진 아동들에게 늦기 전에 도움을 줄 학습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없는 외진 지역인 관계로 자원 봉사자가 오지 않고, 유급 학습교사도 채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박소양 (13세)

위의 여자아동을 소개 하고 싶습니다. 태어날 때 항문이 없어 수술을 몇차례 했다고 하며 제가 만났을 때 2학년 2학기였는데 눈이 사시인데 집에서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 무작정 안과에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무상으로 수술 받게 되어 예쁜 눈이 되었지요.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안경을 써서 시력을 교정해야 하는데 집에서 돌보아 주지 않고 저도 많은 아동들에게 마음을 쓰다보니 눈이 다시 좋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늘 병원에 가야지라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아동가정 사정은 아동이 7세 때 부모가 이혼하여 모는 집을 나갔고 아빠는 몸이 건강치 않은 관계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할머니가 가정일을 하시지만 할머니도 몸이 불편하셔서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어려움이 많은 가정이지요.

아동의 동생은 학습부진으로 장애등급을 받아 현재 3학년이지만 부진아 반에서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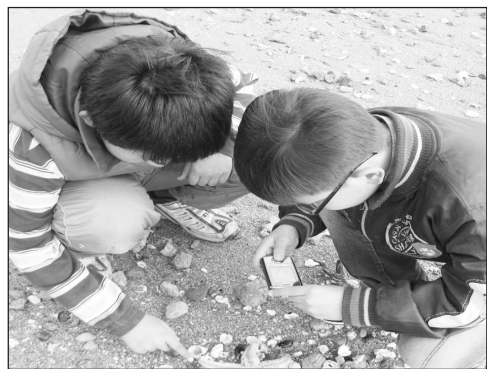
답니다. 이 집은 사촌 오빠가 중학교1학년이며 남자만 5명 여자 2명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동의 학습에 필요한 것이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수 있다면 아이가 지금처럼 기가죽지 않을텐데... 외적으로도 왜소하여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데 용돈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사고 싶은 것도 하나도 살 수 없어 늘 위축된 아동의 모습을 보며 늘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조용훈 (11세)

아동은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4세에 딸은 엄마가 데려가고, 용훈이는 아빠가 데려 갔는데, 할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니 안 될것 같아 조부모가 4살 때 부터 데려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식당을 하고 있지만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8년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해 용훈이가 급식비 영수증을 공부방에 놓고 가서 학교에 문의해 보니 몇달째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할아버지 만나고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렸는데 현재 생활비가 없으니 이십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3명이 생활하시지만 전기요금 못내면 전기 철거한다고 하고, 때로는 쌀이 없어 내일 밥도 굶게 되는 형편에 저희 공부방도 없지만 우선 당장 필요한 곳에 주어야 되겠기에 있는 기부받은 쌀을 가져다 드리기도 합니다.

돈은 드릴 수가 없어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만 했던 적도 있는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정이라서 소개드리고 싶고, 용훈이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를 신부로 키우고 싶은 욕심나는 아이랍니다. 잘 될지 모르지만 심리치료를 시키고 나



름대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서 돌보고 있지만 함께 살지 않으니 많이 역부족이지요.

하지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요. 공부는 잘 하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열등감에 시달려 분노가 많아서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용훈이를 어떻게 만들지 기도 합니다. 겨울에도 거의 전기 장판으로만 살고 할아버지 집은 있지만 거의 빛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생활하시기로 했습니다. 용돈도 받아보지 못하는 용훈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목포의 '작은 꽃들의 집' 공부방 추천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0월 ~ 2009년 2월까지)

일반/업소/단체/기관	
강금생	~2009년 3월
강대성 / 마리아	~2008년 12월
강명희 (에밀리아)	~2009년 12월
강승희 (카타리나)	~2008년 12월
강윤선 (루시아)	~2009년 12월
고경애 / 고석태	~2009년 2월
곽금순	~2009년 5월
곽노덕	~2008년 12월
구귀옥 (아나타시아)	~2008년 12월
구춘희	~2009년 6월
권순 (리오바)	~2009년 3월
금화열 / 로사	~2009년 4월
김강욱	~2008년 12월
김경진	~2008년 12월
김경호	~2009년 3월
김관동 / 강미	~2009년 4월
김관동/관동한의원	~2009년 4월
김남현	~2009년 12월
김남례 (모니카)	~2009년 4월
김남식 (안드레아)	~2008년 12월
김남식 / 율리아나	~2008년 12월
김동한	~2009년 12월
김두하 / 연희	~2009년 12월
김명자 (수산나)	~2009년 2월
김명희 (율리아나)	~2008년 12월
김문철 / 카타리나	~2008년 12월
김민철 / 진아	~2009년 12월
김박철 (안젤라)	~2009년 8월
김보경/김경숙	~2008년 12월
김성헌	~2009년 4월
김성화	~2009년 3월
김수연	~2008년 12월
김승현 / 현동	~2009년 2월
김영연	~2009년 3월
김영석	~2008년 12월
김영식 / 김소영	~2008년 12월
김영애	~2008년 12월
김우경	~2009년 1월
김원정	~2009년 3월
김인순	~2008년 12월
김재인 (안나)	~2009년 12월
김정옥 / 숙희	~2009년 12월
김정자 Spencer	~2009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08년 12월
김정희 / 준수	~2009년 12월
김종덕 / 아네스	~2008년 10월
김중빈	~2008년 11월
김진석 / 소피아	~2008년 12월
김진희 크리스티나	~2008년 12월
김찬문	~2009년 6월
김창겸	~2008년 12월
김춘실	~2009년 1월
김호찬	~2009년 2월
김홍자 (아네스)	~2009년 1월
김화동	~2009년 12월

류익희	~2009년 12월
민들레회	~2009년 3월
민일성 / 멜라니아	~2008년 12월
박규호 / 루시아	~2009년 2월
박민규	~2008년 12월
박봉임	~2209년 12월
박영수/Tri State Contractors	~2009년 3월
박종J	~2009년 2월
박찬호	~2008년 12월
서영숙	~2009년 12월
서정길	~2009년 6월
소근화 (도미니)	~2009년 12월
소병각	~2009년 12월
손양조	~2009년 1월
송상훈 / 마리아	~2009년 6월
신용수 / 크리스티나	~2008년 12월
심외숙	~2008년 12월
안나희	~2009년 3월
안병화	~2009년 2월
안순상	~2009년 12월
안치홍 안토니오	~2008년 12월
안혁빈 / 데레사	~2009년 4월
양방우 / 정자	~2008년 12월
양헬렌 / 김현자	~2008년 12월
어도로테아	~2009년 12월
어진경	~2009년 12월
오성웅	~2009년 2월
오진환 (로마노)	~2008년 12월
우기업 / 데레사	~2008년 12월
원승철	~2008년 12월
유정식	~2008년 12월
윤민숙 (데보라)	~2009년 12월
은임순	~2008년 12월
이갑현	~2009년 2월
이강영 (데오도로)	~2009년 6월
이광호 / 경옥 / 미라	~2009년 1월
이데레사M	~2008년 12월
이만수	~2009년 2월
이병준 / 세실리아	~2008년 12월
이상일	~2009년 12월
이선옥	~2008년 12월
이세혁 / 세실리아	~2009년 12월
이수연	~2009년 3월
이순남	~2009년 3월
이순용 (안젤라)	~2009년 3월
이승구 / 분다	~2008년 12월
이신규	~2009년 12월
이알비나	~2009년 1월
이용운	~2009년 2월
이우진 / 김숙희 / 이명	~2009년 2월
이유정 / 이혁주	~2009년 12월
이은배	~2009년 2월
이정일	~2008년 12월
이주완 (스테파노)	~2008년 12월
이천우 / 헬레나	~2008년 12월
이태선	특별후원

이태영	~2009년 2월
이태욱 / 리타	~2009년 4월
임계빈 / 데레사	~2009년 4월
임승재 / 요안나	~2008년 12월
장경옥 / 윤성	~2009년 12월
장리차드	~2008년 12월
전수일 / 글라라	~2008년 12월
전태진 / 전기복	~2009년 3월
정창조 / 루시아	~2008년 12월
제인워싱턴동창회	~2008년 12월
조명규 / 데레사	~2008년 12월
조명규 / 조미란	~2008년 12월
조명규 / 조미화	~2008년 12월
조명규 / 조정현	~2008년 12월
조민주 / 조옥희	~2008년 12월
조봉순 (아가다)	~2009년 12월
조성수	특별후원
조영인 / 모니카	~2009년 6월
조정근	~2008년 12월
주삼성 / 레지나	~2008년 12월
채정연	~2008년 6월
최마리아	~2008년 12월
최문희 (카타리나)	~2009년 2월
최순주	~2008년 12월
최순희	~2009년 3월
최은경 / 단비 / 남규	~2008년 12월
최재근 / 가브리엘	~2009년 2월
최재근 / 광송혜	~2009년 2월
최재근 / 광지호	~2009년 2월
최재근 / 글라라	~2009년 2월
최재근 / 씨리나	~2009년 2월
최재근 / 최진영	~2009년 2월
최재근 / 최진호	~2009년 2월
최재근 / 캐터린	~2009년 2월
최재필	특별후원
최정선 (엘리사벳)	~2008년 12월
최종걸	~2008년 10월
최주리 / 엘머	~2009년 3월
최현옥	~2008년 8월
하명희 (말가리따)	~2009년 4월
하상희	~2008년 12월
하주리	~2008년 12월
한기열 / 분도	~2008년 10월
한마리아	~2009년 12월
한정현	~2009년 2월
한중희 / 영희	~2009년 12월
허영숙	~2008년 12월
홍성철 / 세실리아	~2008년 12월
홍알벗	~2009년 3월
홍진원 / 김은숙	~2008년 12월
황원균 / 황영문	~2008년 12월
황정자 (데레사)	~2008년 12월
Garvey, Cheryl K	~2009년 3월
Park's Vending Service	~2008년 12월
Reed, Julianna	~2009년 2월
Tan, Andrew/Anna	~2008년 12월

아동결연 / 시설후원	
대건의 집	
고봉수	~2008년 12월
박영희 데레사	~2009년 4월
안순상	특별후원
대철 베드로의 집	
고경자	~2008년 12월
안순상	특별후원
루치아 쉼터	
권영수 / 권점숙	~2009년 4월
박찬영	~2009년 2월
송승혜	~2009년 2월
안순상	특별후원
오승은	~2009년 2월
이데레사	~2009년 2월
이명구 / 수산나	~2008년 12월
이영희	~2009년 6월
이윤아 잼마	~2009년 2월
최윤옥	~2009년 4월
베론성지	
박봉임	~2009년 12월
북평성당	
김광호	~2008년 12월
김병윤	~2009년 3월
윤경자	~2009년 12월
북한돕기	
한귀병	~2008년 12월
분도의 집	
안순상	특별후원
살레시오의 집	
소재웅 / 소난희	~2009년 2월
안순상	특별후원
삼척 종합사회복지관	
구자화	~2008년 10월
김명숙	~2008년 12월
김순지	~2009년 3월
김진아	~2009년 12월
박미송	~2009년 2월
성승옥	~2009년 2월
성찬용	~2009년 2월
소재웅 / 소난희	~2009년 2월
안세실리아 / 크리스토퍼	~2009년 3월
이명자	~2009년 3월
이소영	~2009년 1월
이연철 / 박희임	~2009년 3월
편성대	~2009년 2월
한귀병 (토마스)	~2009년 4월
익명 H	~2009년 2월
서울장학결연	
권순희 (사라)	~2009년 2월
김주리	~2009년 3월
최병렬 / 최경희	~2009년 3월
안나의 집	
안순상	특별후원
예셋의 집	
안순상	특별후원

원주 비안네성소	
강명희	~2008년 12월
구귀옥	~2008년 12월
금화열	~2009년 4월
김남래 모니카	~2009년 4월
김두하	~2009년 12월
김복금 헬레나	~2008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08년 12월
안순상	~2009년 12월
이희자 엘리사벳	~2008년 12월
조봉순 아가다	~2009년 12월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	
강명희 (에밀리아)	~2009년 2월
고경자	~2008년 12월
김글라시아 (3명 아동후원)	~2009년 1월
김병윤	~2009년 6월
김용상	~2009년 4월
김지은	~2009년 3월
매죽희 (2명 아동후원)	~2009년 3월
박영수 (2명 아동후원)	~2009년 3월
서윤배 / 데레사	~2009년 6월
이도훈	~2009년 3월
이봉기	~2009년 12월
장경옥 / 윤성	~2009년 12월
정우석	~2008년 12월
조성수	~2008년 12월
차명자	~2009년 2월
최주리	~2009년 3월
한중희 / 영희	~2009년 4월
황덕수	~2009년 2월
황원균 / 황영문	~2009년 12월
황치권 / 황숙희	~2008년 10월
Langbauer, Catherine	~2008년 12월
Pharr, Latashi	~2008년 12월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박정희 (카타리나)	~2009년 3월
안순상	~2009년 12월
Reed, Juliana	~2009년 2월
제천 노인복지관	
소재웅 / 소난희	~2009년 2월
안순상	~2009년 12월
익명 C	~2009년 3월

천사들의 집	
안순상	특별후원
청소년의 집	
안순상	특별후원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고재오	~2009년 1월
고현주 (2명 아동후원)	~2009년 12월
김계실	~2009년 4월
김미정	~2009년 6월
김영식 / 김소영	~2009년 4월
노명아	~2009년 3월
익명 P	~2009년 12월
안 알렉스	~2009년 3월
윤경자	~2008년 12월
이용선 (3명 아동후원)	~2009년 12월
정규임	~2009년 3월
최일지	~2009년 1월
흑빛공부방	
고경애	~2009년 2월
김순섭	~2009년 2월
늘푸른여성골프회	~2009년 12월
박완다	~2009년 12월
이진희	~2009년 3월
차창옥	~2009년 2월
최평란	~2009년 12월
네팔	
곽호인신부	~2009년 10월
김남현	~2008년 12월
김명숙	~2008년 12월
김명철 / 소화	~2009년 12월
김안젤라	~2009년 12월
김헬리시아	~2009년 12월
변애린	~2008년 12월
안알렉스 / 안크리스토퍼	~2008년 12월
안순상	~2009년 12월
이은배	~2008년 12월
정규임	~2008년 12월
허영숙 (2 아동후원)	~2009년 12월
Langbauer, Catherine	~2008년 12월
Lee, Andy	~2009년 12월
성심원	
김세실리아 팀	~2008년 12월

파푸아 뉴기니	
김세실리아팀	~2009년 6월
변레지나	~2009년 11월
안순상팀	~2008년 12월
CLC겨자씨팀	~2008년 12월
에과도르	
백승태 / 마리아	~2009년 12월
후원회지 광고후원	
김씨자동차	2008년 1년
루시아강	2008년 1년
유스티노한	2008년 1년
C & C Media	2008년 1년

사랑의 모금통

Best Seller Video / 김경춘	2월	Greensboro Corp Cafe / 이호	2월
Chesterbrook Excel / 김영술	12월, 2월	Wow Deli / 임대식	2월
Beulah Cleaners / 김영희 아가도	10월	Jon's Cafe / 최용태	11월
J & C Interiors / 김재설 김준	10월	Paddock Cleaners / 한귀병	2월
Pickett Road Cleaners / 김창겸	12월	Lighthouse Wine & Spirits	12월
Liberty Cafe / 박루시아	11월	Market Square Cleaner	12월
Express Seven Food / 박정복	11월, 2월	Georgetown Valet / 김남식	12월
B P Short Food / 박진욱	12월, 2월	Clifton Cleaner / 정미순	12월
Capitol Cafe / James Hsu	11월	Sun Drycleaner / 권순	12월
세라미용실	11월, 12월, 1월, 2월	Sunrise Cafe / 우희경	2월
Maynine Inc / 용복순	11월, 12월	Bethesda Cleaner / 박원균	2월
Brafferton Cleaners / 이갑용	10월	Greatfalls Cleaner / 박원균	2월
Subway / 이민석	2월	McLean Valet	2월

* 후원금 내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되신 분, 주소가 변경된 회원님들은 후원회에 알려주십 시요. (571)432-9868

컴퓨터 수리·문제해결

NO!
여타 수리
비가자 가격

- 각종 바이러스 퇴치
- 유, 무선 인터넷 설치
- 각종 컴퓨터 문제해결
- 느린 컴퓨터 원상복구
- 컴퓨터 교육

~초보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등 고급 그래픽까지 교육

(703) 635-0115 ~ 6

STUDIO 사진·비디오

- VIDEO
- PHOTO
- DESIGN

사진·비디오 촬영
영상을 편집·제작
인쇄, 각종 디자인

전직 방송PD 출신, 고급장비 보유
가정에서 촬영로 보관중인 비디오 테이프 편집, DVD제작

(703) 503-0308 Cell (703) 635-0115

CREATIVE
CREATOR

MEDIA

인쇄 문화의 토탈 솔루션 서비스 - C&C MEDIA

한차원 앞선 인쇄문화를 선도해 가는 씨앤씨 인쇄소!
광고 기획, 종합디자인에서 인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인 최대의 인쇄 회사입니다.

CREATIVE
CREATOR MEDIA

CREATIVE CREATOR MEDIA, LLC.
9425-C Mathy Drive, Fairfax, VA 22031
Phone 703.425.7800 / 703.425.7200
Fax 703.425.2800
E-mail : cncmedia@gmail.com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008년 10월 1일 ~ 2009년 3월 15일)

곽금순(일반), 권순희 사라(결연), 김광호/노마(결연), 김민철/진아(일반), 김영희 모니카(모금통), 바오로회(결연), 안병화(일반), 엘리시오회(일반), 이상일(일반), 정세레나/Virginia Cleaner(모금통), 최병렬/최경희(결연)

2008년 10월 ~2009년 2월분 후원금내역 : 총 \$92,365

	2008년 10월	2008년 11월	2008년 12월	2009년 1월	2009년 2월	합계
총 후원금	7,408	23,107	38,277	11,923	11,650	\$92,365
원주후원회	1,023	2,802	18,042	2,213	2,575	\$26,655
성동장애인복지관	100	100	100	100	600	\$1,000
구곡성당		20				\$20
대건의 집	50	150	50	220		\$470
대철베드로의 집	50	170	50	120		\$390
루치아쉼터	160	240	440	120	260	\$1,220
백운성당		180				\$180
베론성지					120	\$120
북평성당		160		930		\$1,090
북한	100			300		\$400
분도의 집				120		\$120
살레시오의 집		120	60	180	60	\$420
삼척종합사회복지관	775	880	475	900	505	\$3,535
서울장학결연		200	350	200	150	\$900
안나의 집				120		\$120
예샘의 집				120		\$120
원주복지관	2,770	1,900	950	2,320	1,450	\$9,390
원주비안네성소후원	20	75	40	200	120	\$455
정선프란치스코의 집		150		120	200	\$470
제천시 노인복지관		380	60	300	60	\$800
천사들의 집		2,280		120		\$2,400
청소년의 집	50	150	50	120		\$370
횡성종합사회복지관	930	1,390	590	1,160	4,230	\$8,300
횡성노인복지관		180				\$180
흑빛공부방	680	560	680	1,220	720	\$3,860
해외후원금						
네팔		7,740		720	600	\$9,060
브라질 사웅 파울로			2,000			\$2,000
사랑의 선교수사회			1,040			\$1,040
성가정작은자매수녀원			1,000			\$1,000
성심원			1,000			\$1,000
파푸아 뉴기니	700	3,280	300			\$4,280
파푸아 뉴기니 - 올란도			10,000			\$10,000
하이티 청소년 미션			1,000			\$1,000

바람의 기별

정채봉

라디오의 다이얼을 조정하는 딸아이한테 문득 아버지가 물었다.

“잡음 없는 음악을 들으려면 듣고자 하는 방송국의 주파수에 정확히 맞추어야겠지?”
“그럼요, 아버지.”
“그럼 네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으려면 어떤 주파수에 맞춰야겠다고 생각하니?”
대답하지 못하는 딸아이한테 아버지가 말했다.

“숨쉬는 것이 때로는 천둥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진솔해야 한다. 진솔의 주파에 맞추면 너의 영상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번에는 딸아이가 물었다.
“그러면 아버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어떤 주파수에 맞춰야 하지요?”
“그거야 동정의 주파지.”
아버지가 설명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사정을 말하면 자기 경험 또한 끼어들려고 안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이 이야기할 때는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딸아이가 다시 물었다.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떤 주파수에 맞춰야 하지요?”

“그거야 겸손이지. 스스로 낮아지고 비워지지 않고서는 그 주파수는 맞춰지지 않는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파수가 열리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바라는 것만을 잔뜩 늘어놓고선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을 생각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화기를 딱 내려놓지.”

아버지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한테 모든 주파수를 다 열어놓고 나무 아나운서를 통해 날씨 아나운서를 통해 풀잎 아나운서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

딸아이는 먼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정기회원

매달 12불이상이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중 20%는 지구촌 긴 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특별후원

후원금액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금액을 언제든지 후원하시면 됩니다.

고국 아동결연

매달 60불씩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50불은 결연아동에게 직접 전달되며 10불은 결연아동 관할 복지관 복지 서비스를 후원합니다.

해외아동복지
급식지원

1년에 \$200로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및 급식지원을 하게 됩니다.

회비납부 방법:

- 1. 매 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교육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 2.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는 Caritas Wonju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3. 회비는 매달 혹은 3개월, 6개월, 1년치 회비를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연락처 : 571-432-9868/703-968-3010
이메일 : caritasus@gmail.com
웹사이트: www.caritaswonjuva.com

재단 이사장: 곽호인 베드로 신부

후원회장: 유홍열

고문 변호사: 이인탁

고문 공인회계사: 노상문

재정이사: 강민식, 김글라시아, 김명철
유폴라, 조영혜, 차명자
김리나, 윤경자, 홍세실리아
김돈현

운영이사: 김 데레사, 노상문
고재오, 김명철, 차명자
윤경자, 김글라시아, 유자경
한린다, 이 데레사

포스터 디자인: 백경화

홈페이지 관리: 하보이

사진촬영: 지수성

본 회지는 매 6개월에 한번씩 발행됩니다.

발간인 : 곽호인 베드로 신부
편집인 : 유자경, 이소영, 김데레사
원고 교정 : 정영희
편집 Layout : 백경화
인쇄 : 워싱턴 중앙일보

원주카리타스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구분	정기회원(), 특별후원()				
신청일		성명		전화번호	
주소				E-mail	
회비/월	\$12() \$20() \$30() \$40() \$50() 기타() 특별후원()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고국아동/공부방 결연 후원 신청서

신청일		성명		전화번호	
주소				E-mail	
회비	결연 \$60/월 ()			후원아동/ 공부방이름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급식지원 신청서

신청일		성명		전화번호	
주소				E-mail	
회비	1년에 \$200				

치 주 치 과 전 문 의

Perio Implant Center 강원근

인공치아 / 잇몸수술

Q 치주(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이라면 일반치과 의사들이 강원근 치주치과 전문의에게 리퍼(소개)하는 이유는?

A “각종 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을 가장 성심껏 전문의의 기술로 치료해 드립니다.”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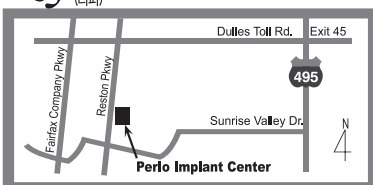
Turfs 치대 졸업
Univ. of MD 치주전문의 졸업
U.S. NAVY 치주 전문의 연수
Board Eligible for Academy of Periodontology
미 치주학회 정회원
Implant 학회 정회원

진료과목

치주 진료
인공 치아 이식(Implant) 상담 치료
풍치 수술, 잇몸 성형수술

Refer
(리퍼)

일반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때 해당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하는 의료단체



703.648.0500
11866 Sunrise Valley Dr., #101, Reston, VA 20191

www.perioimplantcenter.com

Kim's

AUTO SERVICE




김씨자동차 정비센터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성껏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 신용 친절

외제차 & 국내차 대표: 김남식
Fair City Mall 근처 U.S 우체국 바로옆의 골건물
3707 Pickett Rd., Fairfax, VA 22031 **(703)425-4600**



“Service Above All”
Full Service Funeral Home and Crematory

Serving All Cemeteries • Prearrangements Available
Family Owned and Operated



Fairfax Memorial Funeral Home
9902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425-9702
Peter L. Piscitelli, General Manager

Fairfax Memorial Park
formerly Calvary Cemetery
9900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323-5202
Family Owned and Operated Since 1957



WASHINGTON GRAPHICS

실사출력 전문업체 - 워싱턴그래픽

차량랩핑, 베너, 현수막, 레스토랑,
델리 등의 메뉴보드, 벽화
그외 모든 디스플레이 그래픽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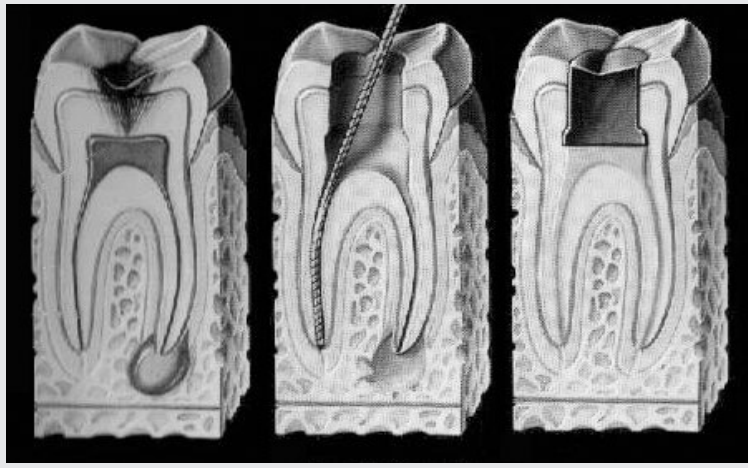
703.750.2884

ENDODONTICS-ROOT CANAL SPECIALIST

신경치료 전문의

Charlie H. Hong, DMD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703-359-4447

3554 Chain Bridge Rd., #401
Fairfax, VA 22030

차명자 치과

Myong J. Cha, D.D.S.

모든 일반치과 진료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915 Old Lee Highway Suite 22-D
Fairfax, VA 22030

(703) 273-5033

윤경자 치과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703-538-2283

6081 Arlington Blvd., Falls Church, VA 22044



휘어팩스 가정의학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환자 한분 한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의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Michael D. Kim, MD

김돈현 가정의학 전문의

William & Mary 대학 졸업
Medical College of Virginia 의과대학 졸업
미국 가정의학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전 Harrisburg Hospital Family Practice Residency Program의 Clinical Faculty 역임
현재 INOVA Fairfax & Fair Oaks Hospital Staff Physician
현재 AMA, AAFP 멤버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학교신체검사

예방접종

종합검진

보험 : 메디케어 및 각종 보험 취급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Tel. (703)591-4100 / Fax.(703)591-5380
10801 Main St., Suite 700, Fairfax, VA 22030 (새주소)



한국어

라인댄스 초급 2 DVD 출시

라인댄스 배우기 초급2과정, 13개 과정 수록



"초급1"에 이어...

5월 초 출시

절찬리 예약 판매중!!!

★ 강좌 및 시범, 음악이 곁들여진 따라하기로 구성



따라서 즐기다 보면 어느새 익혀 집니다.
집에서 혼자 쉽게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 25 + 송료(\$ 3)

SET 구입시 할인

초급1, 초급 2, SET : \$ 45 + 송료(\$ 4)



단체주문 특별 할인

◎ 5개 이상 단체 주문시 송료 Free

구입하실 분은 아래주소로 Check을 보내주십시오.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수표의 지급인 란에는 Caritas Wonju 로 써 주십시오.
* 메모란에 "라인댄스 DVD 주문"이라고 명시해 주십시오.

라인댄스도 배우고
불우 이웃도 돕고...

※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쓰여집니다.

본 강좌는 WBS 워싱턴 TV(Cox Cable Ch.30)에서 매주 한 편씩 방영
되었으며 새로 출시되는 초급 2반 DVD도 향후 방영 될 예정입니다.



571-432-9868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